

통성경 교육을 통한 회중 변화에 관한 연구
: 시온성교회 장년부의 신앙적 삶의 변화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김태균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19년 5월

Copyright © 2019 Taegyun Kim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A Study of Congregational Transformation through Tong Bible Education A Case of Adult Class of Sionsung Church, Korea

Taegyun Kim

Sionsung Church, Korea

In this study, three times(Between February and November 2016, January - December 2017, and February - October 2018) were screened at the Sionsung Church in Ansan, We studied the changes in the congregation's individual, family, church, and society through the Tong Bible education(centering on 40stem) based on the Tong bible school program conducted until the end of March.

We believe and confess that the Bible is alive, vibrant, and sharper than any sword that is vigorous to the left or right, and that it spits the soul, spirit, joints, and bone marrow. Therefore, those who believe and confess Jesus as Lord of salvation have studied the Bible by hoping that the place of their lives will be changed through this Word of God. And so, there have been and have been many educational program for the Bible in Korea.

However, despite may Bible study programs, there is only a small change in the lives of the Saints, but no fundamental change has taken place. This is because so far most of the educational programs on the Bible have been focused on building partial and fragmented knowledge. In other words, because the Bible was partially and fragmentarily read and interpreted, the Bible was not fully understood. Part of reading the Bible is not the sum of the whole. No matter how many pieces of biased and fragmented Biblical knowledge are gathered, we can not read God's heart in the Bible.

But Dr. Byeong-Ho Cho's Tong Bible School program overcame these shortcomings. When you look at the Bible, you can see the forest and the trees together.

This study is a study that proves that the congregation can experience fundamental changes through 40stem, Tong Bible school programs. And the result was amazing.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education have tried hard to know the words of God by experiencing the words of Hebrews 4:12 in their own lives.

I hope that their growth will not stop until the fullness of Jesus Christ is reached. And this researcher studied the remarkable educational effect of this Tong Bible school and this paper to inform God who has been together on this way.

국문초록

통성경 교육을 통한 회중 변화에 관한 연구:
시온성교회 장년부 적용 연구

김태균

시온성교회, 한국

본 연구는 안산에 있는 시온성교회에서 <통성경학교>라는 타이틀로 세례교인 이상의 장년부를 대상으로 3차례 (2016년 2월~11월까지, 2017년 1월 ~ 12월, 2018년 2월~10월까지) 진행한 통성경학교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통성경교육(40줄기를 중심으로)을 통해 회중의 개인과 가정, 교회와 사회에서의 변화를 연구한 것이다.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믿고 고백한다. 그래서 예수를 구원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성경을 공부해왔다. 그리고 그에 따라 한국에는 지금까지 여러 많은 성경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고, 또 만들어져 왔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경을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는 작은 변화만 있을 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한 이유는 지금까지 성경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대부분이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지식을 쌓는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즉, 성경을 부분적이고 파편적으로 읽고 해석을 했기에 성경 전체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성경 읽기에 있어서 부분은 전체의 합이 아니다. 아무리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성경 지식을 모아 놓는다고 하여도 그것을 통해 성경 전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병호 박사의 <통성경학교> 프로그램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했다. 성경을 볼 때 숲과 나무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포물러가 구성되어 있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그 <통성경학교>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성경 40줄기를 통해 얼마든지 회중이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할 수 있음을 증명한 연구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다. 교육에 참여한 이들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더욱 힘썼다.

그들의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기를 소망하며, 또한 본 연구자도 이 통성경학교의 놀라운 교육 효과와 또한 이 길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리고자 본 논문을 연구하였다.

목차

감사의 글	x
표 목차	ix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방법과 범위	7
II. 회중의 변화에 대한 성경적·신학적 이해	9
통성경이해	9
성경통독	11
통성경 포물러	26
통성경학교	29
회중의 변화에 대한 신학적 이해	34
회중의 변화에 대한 성경적 이해	46
III. 회중의 변화를 위한 통성경 40줄기 교육	59
통성경 40줄기와 개인 변화	62
통성경 40줄기와 가정 변화	64
통성경 40줄기와 교회 변화	66
통성경 40줄기와 사회 변화	71
IV. 프로젝트 실행과정: 안산 시온성교회	77
프로젝트 순서	77
통성경 교육을 통한 개인의 변화 사례 연구	80

통성경 교육을 통한 가정의 변화 사례 연구	83
통성경 교육을 통한 교회 생활의 변화 사례 연구	86
통성경 교육을 통한 사회 생활의 변화 사례 연구	88
V. 결론	91
요약 및 평가.....	91
제언	97
참고 문헌	100

표 목차

<표1> 365일 성경통독.....	12
<표2> 통성경학교 커리큘럼.....	30
<표3> 시온성 통성경학교 2차 커리큘럼	59
<표4> 시온성 통성경학교 1차 커리큘럼	63
<표5> 가정예배	65
<표6> 시온성 통성경학교 커리큘럼	92

감사의 글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길을 이야기한다. 대표적인 길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종 다윗이 걸어갔던 길이요 여로보암의 길은 제사장 나라의 꺾뎀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했던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패망의 길이다. 길은 자고로 다녀야 길이 된다. 다윗의 길은 다윗이 첫발을 내딛었고, 그 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 결국은 길이 만들어진 것이다. 여로보암의 길도 동일하다. 여로보암이 첫발을 내딛었고, 그 뒤로 많은 패역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의 어리석은 길이 만들어진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세상 죄악을 벗어나 아버지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유일한 길이다. 이 길이 성경에 있었는데, 그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 약 30년 이상의 시간을 낭비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조병호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조 박사님과 통성경을 통해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성경 한 권이면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실하고 위대한 꿈에,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손 내밀어 주신 조병호 박사님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아주 많이 부족한 자를 그 길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형님처럼 한 걸음씩 지치지 않게 이끌어 주신 김영래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이 길을 두고 망설일 때 그 길을 가라고 선뜻

지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시온성교회 담임 목사이자, 내가 걸어가야 할 목회자 길의 본을 보여 주신 나의 영원한 담임 목사님, 임광영 목사님과 장영미 사모님께 진심을 담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못난 아들을 믿고 응원해 주시는 내 부모님과 15년 전과 동일하게 한결같이 누구보다 내 걸을 지켜주고 나를 믿고 응원해 주는 내 사랑하는 아내 정진이 사모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 보석과 같은 세 아이들(시온, 시은, 시우)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나를 처음으로 불러 이 길을 걷게 하시고 마침내 내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순간에 나를 안아주시며 ‘참 수고하고 애썼다. 나의 좋아! 내가 참 많이 기다렸다’ 라고 말씀해 주실 영원하신 내 주님,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린다.

제 I 장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교회는 회중의 변화와 성장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는 공동체 내부에 속해 있는 이들을 살펴야 한다. 이들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자리를 살피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삶의 자리란 삶의 정황(Sitz im Leben)¹을 말한다. 즉 삶의 터를 뜻한다. 이는 성서 구절, 또는 성서에 기록된 사건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살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을 살피는 것은 매우 많은 작업을 필요로 한다. 성경에 기록된 구절이나 사건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적 배경(당시 유행하던, 또는 사회를 지배하던 문화 등), 사회적 배경(당시 사회적 이슈 등) 및 사람들의 성향(지식의 정도, 물질의 유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자라온 환경) 등을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작업이 성실하게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신앙적 삶의 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뒷부분에 성경 공부를 통한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에 대해 몇 사람을 샘플로 하여 논해 보려고 한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던 것 중에,

¹ 이 용어는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인 헤르만 궁켈에게서 비롯되었다. 오늘날 이 용어는 신학적 연구 밖의 다른 영역에서도 사용되며, 특정한 텍스트의 사회학적인 상황을 규명하려는 관점을 지닐 때 필요한 개념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 2019.1.2 접속), 위키백과.

예를 들어 문화적 배경이나, 사회적 배경 등의 거대 담론은 논하지 않겠다. 이유는 작업의 분량도 방대할 뿐 만 아니라 이 글을 쓰고 있는 연구자나 이 글을 읽고 있을 누군가도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논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회중의 변화와 성장이란 신앙생활을 통한 삶의 질의 변화와 믿음의 성장을 통해 개인과 가정, 교회와 사회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질의 변화란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는 문화와 교육이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화와 교육을 통한 신앙은 이를 통해 반드시 개인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므로 신앙은 개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석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의 신앙관, 세계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성경 교육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조병호는 디모데 후서 3장 15절²에 어려서부터라는 부분이 바로 *from infancy* 즉 다섯 살부터라고 말하는데,³ 이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는 가정, 즉 그 가정에 속한 가족들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직 가정의 변화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통한 질서의 회복으로 개인과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⁴ 실제로 유대인의 교육도 그 처음

² 디모데 후서 3: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³ 조병호, *유대인파 패밀리 스쿨* (서울: 통독원, 2015), 141.

⁴ 하비 블루던, 로리 블루던, *기독교적 교전교육*, 김선화 역 (서울: 꿈을 이루는 사람들, 2008), 26.

시작은 가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⁵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⁶ 개인의 신앙관, 세계관을 변화시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정 예배의 회복’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 예배가 회복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신앙관과 세계관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고 다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법을 통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개인과 가정으로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 또한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특히 직분자들에게 성경을 통해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된 배경과 그 의미와 역할을 제대로 가르칠 때, 교회는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 교회에서 헌신하는 직분자들은 성경적 사명자로 사명감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처럼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개인이 그리고 다시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변화되는데 주체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이들은 사회 변화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왜냐하면 성경을 바르게 읽으로 개인, 가정, 교회에서 삶의 질적 변화와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가장 먼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에 삶의 초점이 바뀌어 ‘나’ 보다는 ‘너’ 를 통한 ‘우리’ 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기를 주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성도의 삶의 질의 변화와 믿음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 갈

⁵ 신명기 6: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⁶ 신명기 31:13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수 있을까? 초대 교회에서는 성도의 선행이 삶의 질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다.⁷ 그러나 윤리와 가치의 기준이 혼란스러운 오늘날의 시대에서도 선행만으로 삶의 질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은 당연히 어렵다는 것이다. 신앙과 삶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그러한 삶은 위선적인 삶이 되고 이는 성도 스스로가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성도의 삶은 성도 스스로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믿음은 성장해 가야 한다는⁸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시작으로 성도는 스스로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통한 삶의 질의 변화와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는 생동감 넘치는 삶을 추구하지 못하고 스스로 정체되는 삶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오늘날의 시대에서 성도들의 삶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혹자는 교회를 통한 봉사 활동이나 사회 여러 봉사 활동 등 여러 가지를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겠지만, 연구자는 바로 성경 공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기도하는 것은 내 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흔히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의 삶의 변화와 성장에 필요한 것들이 이

⁷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에 관해 말할 때 우리는 사람에 관해 말하는 것이다. 텍스트는 윤리가 없다. 사람은 윤리가 있다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다. 기독교의 텍스트와 가르침이 일상에서 삶으로 실천 될 때에만 비로소 기독교는 인간의 경험을 탈바꿈 시켜 비참함을 극복할 수 있었다.” 로드니 스타크, *기독교의 발흥*, 손현선 역 (서울: 좋은 씨앗, 2016), 318.

⁸ 에베소서 4:13.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는 말인데,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 성도들의 삶을 살펴볼 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다. 오늘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성경 공부와 그에 따른 체계화된 program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 또한 그 교제를 통해 많은 교회들이 성경 공부를 통한 성도들의 삶의 변화와 성장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를 해도 성도들의 삶의 변화와 성장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성도들의 삶의 질의 변화와 성장은 첫째,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둘째,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란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성경 패러다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이고 통전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교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통전적인 교육 시스템이란 예를 들어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지, 또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 또는 협력하였는지,⁹ 예레미야의 멍에 이야기와 예수님의 멍에 이야기, 왜 히스기야의 성전 기도는 되고, 시드기야의 성전 기도는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등을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이고 통전적인 큰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¹⁰ 왜냐하면 성경은 66권이 각각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큰 그림을 가지고 기록된 One Story이기 때문이다. 이 하나의 이야기인 성경을 전체의 큰 그림이 아닌 부분적이 파편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⁹ 조병호, *7가지 질문(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알기)*(서울: 통독원, 2015), 15-61.

¹⁰ 이 모든 것들은 조병호의 통성경 포플러 중 Step1의 7가지 질문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기차가 많은 객실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것은 객차 하나하나가 힘을 써서가 아니라 그 객차를 끌어갈 기관차와 또 기관차와 객차를 연결하고 있는 고리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레일 위에 놓여 있어야 비로소 기관차는 정해진 레일 위에서 객차를 끌어 갈 수 있는 것이다.

동일하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 그 순간으로 이어져 있어야 하고 그렇게 이어지도록 성경을 읽을 때 마치 비로소 레일 위에서 기차가 움직이듯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삶의 변화와 그 속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의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연구자가 교회에서 해 온 많은 성경 공부는 기차와 객차를 하나하나 분리한 성경 공부였다. 손님을 태우고 있는 각 객차 한 량 마다의 중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것이 기관차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객차에 대한 파악 즉 성경에 나타난 제법 큰 사건과 그 사건 속에 들어 있는 또 다른 작은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파악은 매우 세밀하게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오랜 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한 성도들의 삶의 변화와 성장은 기대만큼 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 통 성경은 이러한 기존의 성경공부와는 그 패러다임이 전혀 다르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살펴보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귀결시키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는 마치 기관차가 객차를 끄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파편화 시켜 파악하고, 분석해 왔다. 문장의

구조를 파악했고,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겨진 의미를 분석하느라 많은 노력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들은 부분에 대한 파악은 심도 깊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전체의 맥락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누구든지 성경은 그렇게 봐야 하는 책인 것으로 인식되었던 부분도 있다. 즉 성경에 대한 파편화, 부분화 하는 작업이 성도들에게는 성경이 매우 어려운 책, 읽어도 그 뜻을 함부로 파악할 수 없는, 그래서 목회자들만의 전유물인 책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마치 그 옛날 모세가 만나 세대에게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라¹¹ 했지만 이 후 시간이 흘러 사사 시대에 이르러 부모가 성경을 알지 못하기에¹²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성경에 대한 파편화, 부분화 되었던 지식을 지금까지 나온 성경 공부와 달리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One Story로 구성하여 이를 교육함으로 성도들의 새로운 삶의 질의 변화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내는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의 방법과 범위

이상의 목적을 위해 본 논문은 통성경 강의를 실제 목회의 현장에서 3년간 적용한 후,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의 질의 변화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내는 일에 통 성경 공부가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한 조사와 분석, 평가를 현장 연구의

¹¹ 신명기6: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¹² 사사기 2:10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병호의 통 성경 40줄기를 기본으로 43주와, 40주, 38주 공부로 재구성하여 실행 했다. 다만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적 특성으로 인해 이 기간을 연속으로 공부하지 못하고 1주일에 한 번(주일 오후에 2시간)모여 공부하고 과제와 평가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형식으로 진행했다.

2장에서는 먼저 통 성경을 설명하였고, 둘째로 회중 변화에 대한 신학적, 통 성경적 이해를 설명했는데 이를 위해 개인, 가정, 교회, 사회의 변화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설명하였고 또한 성경이 개인과 가정, 교회와 사회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통 성경 40줄기를 통해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2장의 회중 변화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심화시킨 내용으로 회중 변화를 위한 통 성경 교육이 개인, 가정, 교회, 사회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에 대해 40줄기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설명한 교육을 통한 회중의 변화를 프로젝트로 실행한 과정을 기술했다. 먼저 이 통 성경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한 청중과 그들이 속한 교회의 상황을 기술하였다. 이 연구는 본 연구자가 시무하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시온성교회의 청중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간은 2016년 2월~11월까지, 2017년 1월 ~ 12월, 2018년 2월~10월까지 진행하였다. 각각의 기간이 끝날 때마다 이 통성경 교육 프로그램이 성도의 삶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주로 10대에서 70대 초반까지 각 연령층과 교회학교 학생과 교사,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구역장, 청년 등 각 직분자들을 골고루 표본대상으로 삼아 편향성이 없고 되도록 전교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설문하였고, 분석,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시온성교회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성을 가진다는 것을 밝힌다.

제 II 장

회중의 변화에 대한 성경적·신학적 이해

통성경이해

통성경이란?

통성경은 ‘성경으로 개인·가정·나라가 살 수 있고, 성경으로 전도하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목표아래 지난 27년간 한국 교회에 성경통독을 퍼뜨리고 학문화시킨 성경 통독 전문가인 조병호로부터 시작되었다.¹ 특히 그는 2006년 삶의 방법론이자 새로운 성경 읽기의 방식으로서 최초로 통(通)을 말함으로 체계화시키기 시작했으며 이후 2014년 통(通)성경 포물러를 발표함으로 본격적인 통 성경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통(通)성경이란 성경을 연구하고 통독하는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통(通)의 방법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성경적 접근 방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조병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지난 120년간 서구 사회의 모범적인 수신자였다. 교회와 신학뿐만 아니다. 한국 사회의 대부분 영역이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그런데 서구의 방식은 나누고, 쪼개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걸 매뉴얼화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서구의 방식은 ‘문자’와 ‘분석’에 얽매인다. 거기선 부분만 보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가 자기 합리화와 자기 분

¹ cf. <http://tongdok.net/>.

과성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동양의 전통적 사고방식은 다르다. 심정적으로 접근한다. 그건 매우 큰 차이이다. 동양적 방식은 큰 장점이 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²

결국 조병호가 말하는 통 성경 연구란 성경을 서구적인 부분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이 아닌 동양적인 통전적(通典的)인 방법으로 살펴보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서구적인 부분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접근할 때에는 문서비평적인 관점과 또한 문명적 측면에서의 해석을 통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그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파악하여 알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그러나 동양적인 통전적(通典的)인 방법으로 성경에 접근할 때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느낄 수 있게 되고 이러한 맥락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할 때 성경을 오해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무엇보다 조병호는 통(通)을 부분의 합을 뛰어넘는 전체로서의 의미를 찾아보는 방법³이라고 보고 있다. 즉 조병호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경을 통해 성경을 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 성경은 마치 기차의 레일처럼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취한다. 첫째는 성경 통독이고 둘째는 성경 교육이다. 이는 방법적으로 두 가지라는 뜻일 뿐 결국은 성경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기차 레일이 똑같은 방향으로 뻗어나가야 기차가 탈선하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듯이 통 성경 역시 성경 통독과 성경 교육의 조화와 균형, 중요성을 같이하여 결국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확신을 통해 개인, 가정, 교회, 사회가

² 백성호, “교회,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중앙일보*, 2008.5.1.

³ 조병호, *통이다 렛츠통* (서울: 땅에 쓰신 글씨, 2007), 49-50.

변화되어 이를 토대로 이 나라가 살 길을 모색하고, 또한 성경으로 전도함으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의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 통독⁴

이 중 첫째로 성경 통독은 세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첫째는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는 것이다. 성경을 읽되, 부분이 아닌 66권을 전체로 빠른 시간 내에 읽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 통독을 반복하다 보면 성경에 대한 놀라운 직관이 생기게 되고 또한 이 성경 통독을 통해 하루에 5~10구절씩 묵상함으로 말씀의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를 위해 성경을 역사 순으로 재배열해서 읽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역사순 보다는 주로 장르별로 즉 율법서는 율법서대로,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시가서는 시가서대로 예언서는 예언서대로 편집되어 있다. 그러므로 각 부분이 전체 속에서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다. 이것을 통(通)성경 읽기에서는 역사순으로 재배열함으로 역사의 주인이시자 세계 역사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성경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셋째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통(通)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통(通)성경 읽기의 주요 목적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느끼는 것이다.⁵ 따라서 성경통독은 지식 쌓기를 위해서가 주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⁴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2), 12-13.

⁵ 이는 조병호의 주장이지만, 연구자 역시 아주 강하고 확실하게 공감한다.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사귄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함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아야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생기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 전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생기지 않게 된다. 이를 위해서 조병호는 365일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1> 365일 성경통독⁶

1월			
날짜	365일	범위	내 용
1	1	창1~2장	천지창조 - 심히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
2	2	창3~5장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3	3	창6~9장	노아 홍수 - 하나님의 눈물
4	4	창10~11장	생육하고 번성하여 흠어지는 민족
5	5	창12~14장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람의 순종
6	6	창15~17장	아브람의 기다림
7	7	창18~21장	복의 통로 아브라함
8	8	창22~24장	하나님의 친구가 된 아브라함
9	9	창25~27장	이삭의 양보하는 삶
10	10	창28~30장	하란으로 도망간 야곱
11	11	창31~33장	가나안으로 도망간 야곱
12	12	창34~36장	벧엘에서 하나님 만남
13	13	창37~38장	요셉의 고난과 꿈
14	14	창39~41장	총리 요셉
15	15	창42~44장	요셉과 형제들 만남
16	16	창45~47장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
17	17	창48~50장	야곱의 유언과 죽음

⁶ 조병호, 365일 성경 통독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6), 6-9.

18	18	출1~2장	애굽의 종이된 이스라엘
19	19	출3~4장	하나님의 모세 설득
20	20	출5~7장	모세와 바로 협상 시작
21	21	출8~10장	모세의 설득과 하나님의 기적
22	22	출11~13장	유월절을 기념하라
23	23	출14~15장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24	24	출16~18장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공급
25	25	출19~20장	시나이산에서 받은 십계명
26	26	출21~23장	공동체를 위한 삶의 기초
27	27	출24~27장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성막
28	28	출28~29장	제사장 직분의 위임
29	29	출30~31장	하나님께 올리는 성물
30	30	출32~34장	생명을 내어놓고 드리는 모세의 기도
31	31	출35~38장	풍성한 자원과 헌신

2월

날짜	365일	범위	내 용
1	32	출39~40장	성막의 완성과 봉헌
2	33	레1~5장	더 깊은 만남을 위한 다섯 가지 제사 절차
3	34	레6~7장	제사의 규례
4	35	레8~10장	새로운 리더십
5	36	레11~13장	건강을 위한 배려
6	37	레14~15장	생명을 위한 배려
7	38	레16~17장	제사장 역할과 사명
8	39	레18~20장	거룩한 사랑
9	40	레21~22장	공동체를 돌보는 제사장
10	41	레23~25장	아름다운 절기문화
11	42	레26~27장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언약
12	43	민1~2장	첫 번째 인구 조사와 진 편성 - 약속의 성취

13	44	민3~4장	구별된 레위지파 계수
14	45	민5~6장	구별과 헌신
15	46	민7~8장	열 두 지파가 드린 예물
16	47	민9~10:10	출발을 위한 최종 준비
17	48	민10:11~12장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의 진로
18	49	민13~14장	가나안 정탐과 출애굽 세대의 선택
19	50	민15~17장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은혜
20	51	민18~19장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
21	52	민20~21장	가나안에 갈 수 없는 모세
22	53	민22~25장	하나님 군대의 명성
23	54	민26~27장	두 번째 인구 조사 - 약속의 땅을 위한 준비
24	55	민28~30장	거룩한 절기와 제사
25	56	민31~32장	모세와 요단 동편 땅들
26	57	민33~36장	이스라엘 여정과 도피성
27	58	신1~2장	광야 여정에 대한 회고와 반성1
28	59	신3~4장	광야 여정에 대한 회고와 반성2

3월

날짜	365일	범위	내용
1	60	신5~6장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모세의 당부
2	61	신7~9장	명령과 순종
3	62	신10~11장	하나님의 요구
4	63	신12~14장	다시 들려주는 율법
5	64	신15~17장	절기와 송사
6	65	신18~21장	약속의 땅을 위한 규례
7	66	신22~26장	거룩한 백성을 위한 법
8	67	신27~28장	언약에 따른 복과 저주
9	68	신29~30장	언약의 갱신
10	69	신31~32장	역사와 미래

11	70	신33~34장, 시90편	모세의 축복과 죽음
12	71	수1~2장	여호수아와 만나세대
13	72	수3~5장	믿음으로 내딛는 약속의 땅
14	73	수6~8장	만나세대의 믿음에 따른 전쟁의 승패
15	74	수9~12장	이스라엘 승전 기록
16	75	수13~17장	합당한 분배와 특권
17	76	수18~19장	복으로 받은 삶의 터전
18	77	수20~22장	도피성과 레위인의 성읍
19	78	수23~24장	여호수아의 유언
20	79	삿1장~2:10	남겨진 과제
21	80	삿2:11~5장	이스라엘의 사사들
22	81	삿6~7장	기드온과 삼백 용사
23	82	삿8~9장	기드온과 그 아들 아비멜렉
24	83	삿10~12장	진정한 지도자가 없다
25	84	삿13~16장	나실인 삼손
26	85	삿17~18장	기초가 무너진 사회
27	86	삿19~21장	원칙 없는 문제 해결
28	87	룻1~4장	아름다운 율법의 구현
29	88	삼상1~3장	준비되는 사무엘
30	89	삼상4~7장	사무엘의 말씀 개혁 운동
31	90	삼상8~10장	제사장 제도와 왕정 제도

4월			
날짜	365일	범위	내용
1	91	삼상11~12장	길르앗 야베스 사건과 사무엘의 고별사
2	92	삼상13~14장	사울의 블레셋 전투
3	93	삼상15~16장	사울의 불순종과 다윗의 기름부음
4	94	삼상17~18장	다윗의 골리앗 전투 승리와 요나단과의 우정
5	95	삼상19장, 시59편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

6	96	삼상20~21장, 시34편	기도로 여는 하늘문
7	97	삼상22장, 시52편	사울의 공안 정치
8	98	삼상23~24장, 시57편	임명권자 하나님
9	99	삼상25~26장, 시54편	하나님의 테스트
10	100	삼상27~31장	망명지에 들려온 슬픈 소식
11	101	삼하1~2장	남유다의 왕으로 추대된 다윗
12	102	삼하3~5:5	다윗의 세 번째 기름부음과 통일 왕조 수립
13	103	삼하5:6~6장	예루살렘 정복과 법궤 안치
14	104	삼하7~10장	종이 된 다윗왕
15	105	삼하11~12장, 시51편	우슬초 정결
16	106	삼하13~14장	압살롬의 암논 살해
17	107	삼하15장, 시3편	압살롬의 반역
18	108	삼하16~17장	다윗의 도피
19	109	삼하18~20장	다윗의 복귀
20	110	삼하21~22장	다윗의 노래
21	111	삼하23~24장	다윗의 삶의 자취
22	112	왕상1~2장	다윗의 유언
23	113	왕상3~4장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
24	114	왕상5~7장	성전 건축
25	115	왕상8	성전 낙성식
26	116	왕상9~10장	솔로몬의 모든 영화
27	117	잠1~5장	지혜란 무엇인가?
28	118	잠6~9장	지혜의 원리
29	119	잠10~15장	의인의 삶, 악인의 삶
30	120	잠16~20장	지혜를 구하라

5월

날짜	365일	범위	내용
1	121	잠21~24장	마음과 지혜
2	122	잠25~29장	악한 일을 피하라

3	123	잠30~31장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 모친의 잠언
4	124	아1~4	사랑이란 무엇인가?
5	125	아5~8	진실한 사랑
6	126	왕상11장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7	127	전1~3장	인생의 뒤편에서의 고백
8	128	전4~7장	유한 인생, 무한 지혜
9	129	전8~12장	사람의 본분을 기억하라
10	130	욥1~3장	욥의 고난과 탄식
11	131	욥4~7장	욥과 엘리바스의 첫 번째 논쟁
12	132	욥8~10장	욥과 빌닷의 첫 번째 논쟁
13	133	욥11~14장	욥과 소발의 첫 번째 논쟁
14	134	욥15~17장	욥과 엘리바스의 두 번째 논쟁
15	135	욥18~19장	욥과 빌닷의 두 번째 논쟁
16	136	욥20~21장	욥과 소발의 두 번째 논쟁
17	137	욥22~24장	욥과 엘리바스의 세 번째 논쟁
18	138	욥25~31장	욥과 빌닷의 세 번째 논쟁
19	139	욥32~37장	엘리후의 발언
20	140	욥38~42장	하나님의 대답
21	141	시1~2편, 4~9편	시와 찬미
22	142	시10~18편	시와 찬미
23	143	시19~27편	시와 찬미
24	144	시28~33편	시와 찬미
25	145	시35~41편	시와 찬미
26	146	시42~50편, 53편	시와 찬미
27	147	시55~56편, 시60~66편	시와 찬미
28	148	시67~72편	시와 찬미
29	149	시73~78편	시와 찬미
30	150	시79~85편	시와 찬미
31	151	시86~89편	시와 찬미

6월			
날짜	365일	범위	내용
1	152	시91~102편	시와 찬미
2	153	시103~106편	시와 찬미
3	154	시107~118편	시와 찬미
4	155	시119편	시와 찬미
5	156	시120~134편	시와 찬미
6	157	시135~142편	시와 찬미
7	158	시143~150편	시와 찬미
8	159	왕상12~14장	남북 분열과 여로보암의 길
9	160	왕상15~16:20	분쟁하는 남북 왕국
10	161	왕상16:21, 17장	오므리 왕조
11	162	왕18~19장	오므리 왕조와 엘리사의 사역
12	163	왕20~22장	오므리 왕조의 죄악과 아합의 최후
13	164	왕하1~2장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14	165	왕하3~5장	엘리사가 베포른 기적의 배경
15	166	왕하6~8장	오므리 왕조와 엘리사의 사역
16	167	왕하9~10장	예후의 치적과 엘리사
17	168	왕하11~14장	요하스의 치적과 여로보암 2세
18	169	암1~5장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언
19	170	암6~9장	정의를 강물같이
20	171	호1~4장	호세아의 고멜 사랑 비유
21	172	호5~9장	제사보다 사랑을 원한다
22	173	호10~14장	여호와께 돌아오라
23	174	욘1~4장	열방을 향한 사랑
24	175	왕하15~16장	북왕국의 쇠락
25	176	왕하17~18:12	히스기야의 개혁
26	177	사1~3장	이사야의 소망

27	178	사4~7장	그루터기 비유
28	179	사8~12장	구원에 대한 약속
29	180	사13~17장	이방 나라들에 대한 경고
30	181	사18~20장	애굽과 구스에 대한 경고

7월

날짜	365일	범위	내 용
1	182	사21~24장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
2	183	사25~29장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3	184	사30~35장	의로 통치하는 왕
4	185	왕상18:13~37, 사36장	남유다를 위협하는 앓수르
5	186	왕상19장, 사37장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
6	187	왕하20장, 사38~39장	히스기야의 병과 회복
7	188	사40~42장	하나님의 위로
8	189	사43~45장	이스라엘의 회복
9	190	사46~50장	이스라엘의 구원
10	191	사51~55장	고난 받는 종
11	192	사56~59장	참된 회개
12	193	사60~63장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13	194	사64~66장	영광과 평화의 청사진
14	195	미1~3장	영광이 빠져버린 시온 산성
15	196	미4~7장	영광이 회복될 시온 산성
16	197	왕하21~23장	왕정 총결산
17	198	스1~3장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18	199	합1~3장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19	200	나1~3장	열방을 향한 공의
20	201	욘1~3장	마음을 찢으라
21	202	왕하24장, 렘1~3장	남유다에 대한 설득과 심판
22	203	렘4~6장	패역한 남유다

23	204	렘7~9장	주의 계명을 떠난 이스라엘
24	205	렘10~13장	약속을 깨뜨린 이스라엘
25	206	렘14~16장	마음을 돌이키라
26	207	렘17~20장	남유다의 죄
27	208	렘21~23장	예레미야의 설득
28	209	렘24~25장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
29	210	렘26~28장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예레미야
30	211	렘29~31장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설득
31	212	렘32~33장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

8월

날짜	365일	범위	내용
1	213	렘34~36장	포위 중 항복을 위한 설득
2	214	렘37~38장	예레미야의 수난
3	215	왕하25장, 렘39~41장	예루살렘 멸망
4	216	렘42~45장	남겨진 남유다 백성들의 행동
5	217	렘46~48장	멸망에 대한 심판
6	218	렘49~50장	세계를 향한 심판
7	219	렘51~52장	하나님의 심판
8	220	애1~2장	무너지는 예루살렘
9	221	애3~5장	소망 - 주의 인자와 긍휼
10	222	읍1장	형제가 환난 당하는 날
11	223	대상1~3장	다윗의 계보
12	224	대상4~5장	이스라엘의 족보들1
13	225	대상6~9장	이스라엘의 족보들2
14	226	대상10~12장	왕이 된 다윗과 그의 용사들
15	227	대상13~16장	언약궤의 예루살렘 안치
16	228	대상17~20장	다윗의 기도와 승전 기록
17	229	대상21~22장	다윗의 죄악과 회개

18	230	대상23~26장	다윗 시대 직분자 계보
19	231	대상27~29장	다윗의 내각과 성전 건축 준비
20	232	대하1~4장	솔로몬의 성전 건축
21	233	대하5~7장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22	234	대하8~9장	솔로몬의 업적
23	235	대하10~13장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
24	236	대하14~17장	남유다 왕국의 초기 왕들
25	237	대하18~22장	여호사밧의 시대
26	238	대하23~25장	요하스와 여호야다의 개혁
27	239	대하26~28장	웃시야, 요담, 아하스 시대
28	240	대하29~31장	히스기야의 개혁 정치
29	241	대하32~33장	히스기야의 회개와 므낫세의 죄악
30	242	대하34~36장	요시아 시대와 남유다 멸망
31	243	겔1~3장	파수꾼으로 부르심

9월

날짜	365일	범위	내 용
1	244	겔4~7장	남유다에 대한 징계와 심판
2	245	겔8~11장	예루살렘 죄악과 심판
3	246	겔12~14장	하나님을 배역하는 거짓 선지자들
4	247	겔15~17장	하나님을 등진 예루살렘
5	248	겔18	심판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6	249	겔21	심판 받는 이스라엘
7	250	겔23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8	251	겔25	이스라엘 주변 민족에 대한 심판
9	252	겔29	애굽에 대한 심판
10	253	겔33	예루살렘의 함락
11	254	겔36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
12	255	겔38	침략자 곡에 대한 심판과 멸망

13	256	겔40	환상 중에 본 이스라엘
14	257	겔42	하나님의 본 뜻
15	258	겔44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
16	259	겔47	회복과 새로운 땅
17	260	단1~2장	바벨론 제국에서의 위인
18	261	단3	꺾이지 않은 신앙
19	262	단5	제국 변천의 중심에 서서
20	263	단7	다니엘의 환상과 해석
21	264	단10	장래의 일들
22	265	슥1	다시 태어나는 공동체
23	266	슥3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다
24	267	학1~2장	우선 순위를 기억하라
25	268	슥1~6장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26	269	슥7~10장	예루살렘의 회복
27	270	슥11~14장	이스라엘 구원
28	271	스5~6장	성전 건립의 기쁨
29	272	에1~5장	유다 민족의 위기
30	273	에6~10장	위대한 구원

10월

날짜	365일	범위	내용
1	274	스7~8장	에스라의 결심
2	275	스9~10장	개혁을 위하여
3	276	느1~3장	최종 목표를 위한 중간 목표
4	277	느4~7장	성벽 재건을 위한 열심
5	278	느8~10장	초막절을 기념한 신앙사경회
6	279	느11~13장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
7	280	말1~4장	천 오백년 사랑의 아쉬움
8	281	마1~4장	약속의 결정체, 예수

9	282	마5~7장	산상수훈
10	283	마8~10장	예수의 이적과 열 두 제자 선택
11	284	마11~13장	하늘 비밀을 담은 일곱 가지 천국 비밀
12	285	마14~16장	예수의 갈릴리 사역
13	286	마17~20장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14	287	마21~23장	예루살렘 입성과 예수의 설득
15	288	마24~25장	종말에 관한 설교
16	289	마26~28장	용서를 향한 예수의 열정
17	290	막1~3장	열 두 제자 선택
18	291	막4~6장	예수의 이적과 가르침1
19	292	막7~8장	예수의 이적과 가르침2
20	293	막9~10장	변화산 사건과 예수의 가르침
21	294	막11~13장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과 대결
22	295	막14~16장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 사역
23	296	눅1~2장	세례 요한 탄생
24	297	눅3~4장	구원 사역을 위한 기초
25	298	눅5~6장	훈련과 동맹
26	299	눅7~8장	예수의 치유와 가르침
27	300	눅9~10장	약한 자의 이웃
28	301	눅11~13장	예수의 가르침과 이적
29	302	눅14~16장	한 영혼 사랑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
30	303	눅17~18장	예수의 치유와 교훈
31	304	눅19~20장	약자를 위한 배려

11월

날짜	365일	범위	내용
1	305	눅21~22장	최후의 만찬
2	306	눅23~24장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3	307	요1~3장	들러리의 기쁨
4	308	요4~6장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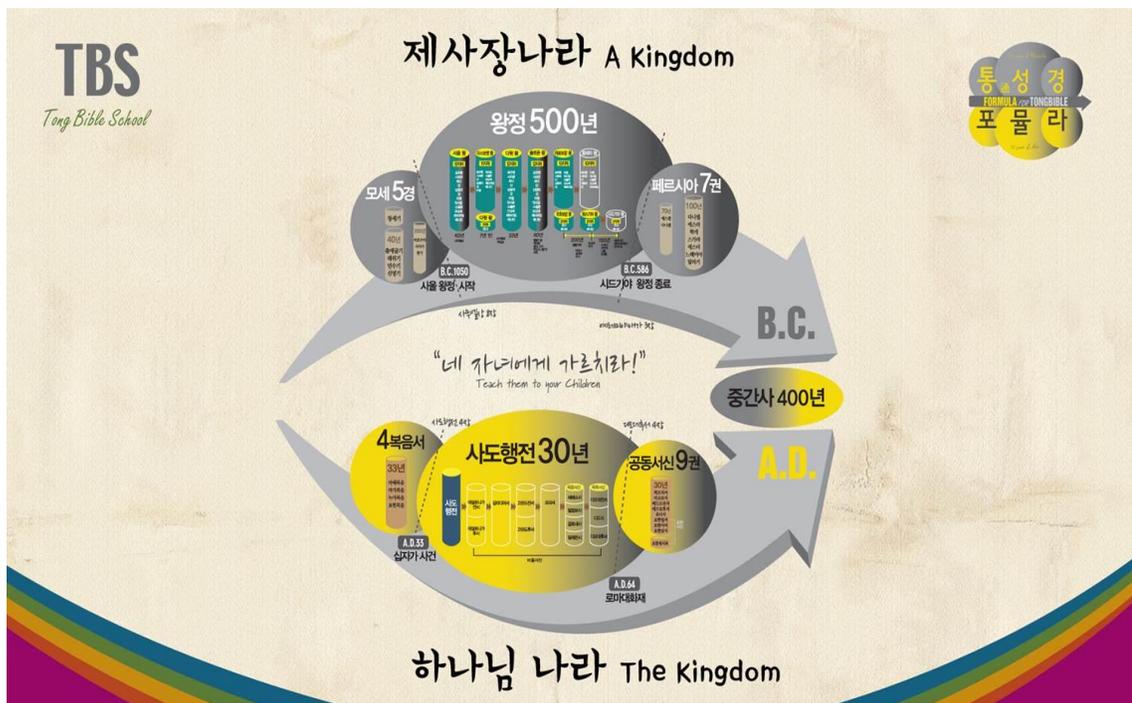
5	309	요7~8장	죄인을 감싸주시는 예수
6	310	요9~11장	선한 목자이신 예수
7	311	요12~13장	새 계명을 주심
8	312	요14~15장	예수의 고별 설교
9	313	요16~17장	제자들을 위한 예수의 기도
10	314	요18~19장	예수의 십자가 사역
11	315	요20~21장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12	316	행1~2장	증인이 된 제자들
13	317	행3~5장	세워지는 초기 교회
14	318	행6~9장	그리스도인 핍박과 열방을 향한 흠어짐
15	319	행10~12장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16	320	행13~15:35	1차 전도여행과 예루살렘 공의회
17	321	행15:36~18:22	2차 전도여행
18	322	살전1~5장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19	323	살후1~3장	수고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라
20	324	갈1~3장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21	325	갈4~6장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22	326	행18:23~19장	3차 전도 여행
23	327	고전1~4장	십자가의 도
24	328	고전5~8장	교회를 위한 권면
25	329	고전9~11장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바울의 당부
26	330	고전12~14장	성령이 주신 은사
27	331	고전15~16장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보
28	332	고후1~4장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29	333	고후5~9장	그리스도의 구별된 삶
30	334	고후10~13장	바울의 참된 자랑
12월			
날짜	365일	범위	내용
1	335	행20:1~6	복음에 빛진 자

2	336	롬4~7장	은혜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
3	337	롬8~11장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4	338	롬12~14장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5	339	롬15~16장	땅 끝 비전과 믿음직한 섬김
6	340	행20:7~23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7	341	행24~26장	가이사랴에서의 2년
8	342	행27~28장	로마 교인들과의 만남
9	343	엡1~3장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구원
10	344	엡4~6장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11	345	빌1~4장	고난 중의 기쁨과 감사
12	346	골1~4장	우주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
13	347	몬1장	기적의 편지
14	348	딤후전1~6장	예수의 선한 일꾼
15	349	딤후1~3장	희망의 상속자
16	350	딤후4장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17	351	히1~4장	오직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18	352	히5~10장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19	353	히11~13장	삶으로 증거되어야 할 이름, 예수
20	354	약1~5장	행함, 믿는 자의 움직임
21	355	벧전1~5장	소망의 반석
22	356	벧후1~3장	거짓 교훈을 물리쳐라
23	357	유1장	믿음을 위한 투쟁
24	358	요일1~5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25	359	요이1장, 요삼1장	사랑과 진리의 조화
26	360	계1~3장	교회를 위한 성령의 권면
27	361	계4~7장	오직 한 분을 위한 노래와 일곱 인
28	362	계8~11장	일곱 나팔의 심판과 순교자들
29	363	계12~15장	하나님의 역사와 위로
30	364	계16~18장	공의로운 심판과 준비된 미래

31	365	계 19~22장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기쁨
----	-----	----------	----------------

통성경 포플러

이러한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여 조병호는 다시 새로운 통(通)성경 포플러를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성경 패러다임과 달리 조병호가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통 성경 포플러는 아래와 같다.(그림1)⁷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통 성경 포플러는 최종적으로 Family School을 지향하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통 성경 포플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그 포인트를 두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당시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성전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놓은 사건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우선적으로 구약 성경을 제사장 나라를 주제로 하여 크게 3개의 트랙(모세5경, 왕정

⁷ 통독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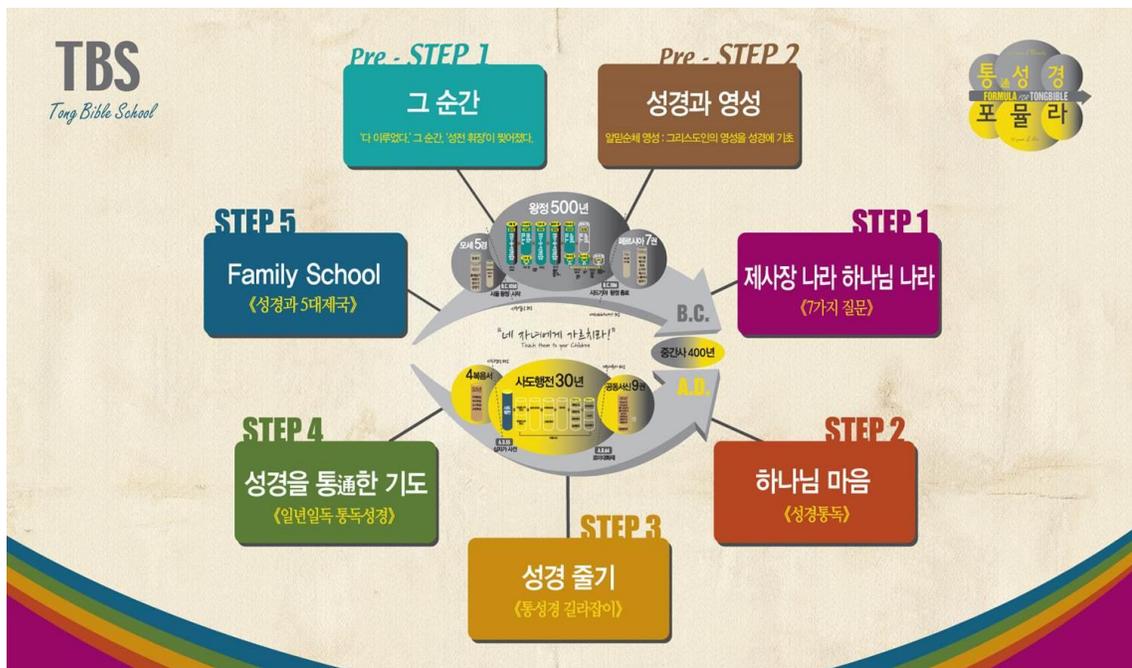
500년, 페르시아7권)으로, 신약 성경을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하여 크게 3개의 트랙(4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를 중간사 400년이라는 트랙으로 묶어 성경 66권 전체를 7개의 트랙 안에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 7개의 트랙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제사장 나라의 그릇이 더 큰 하나님 나라 그릇에 담긴다’ 는 내용으로 결국은 *One Story*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제사장 나라를 주제로 한 구약 성경은 제사장 나라를 Set up시키는 분위기를 담고 있는 모세 5경과 여호수아와 사사기 시대를 거쳐 그렇게 Set up된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대립 또는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어 나가던 왕국의 500년의 왕정이 끝난 뒤에도 어떻게 바벨론 시대와 페르시아 시대의 지배 아래에서도 지속적으로 제사장 나라가 이어져 내려갈 수 있었는지를 담고 있는 페르시아 7권으로 이야기가 정리된다. 또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의 기록되지 않은 400년의 역사를 중간사로 묶어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에도 제사장 나라가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명맥을 이어져 내려갔던 일과 또한 유대인이 분파(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등)되는 과정과 유대인들의 절기인 하누카 절기가 발생하게 된 사건 등을 정리했다.

한편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Set up시키는 분위기를 담고 있는 4복음서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거쳐 그렇게 Set up된 하나님 나라를 박해하는 당시 종교 기득권층이었던 산헤드린 세력과 이러한 박해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 공동체들의 이야기 그리고 A.D 64년에 발생한 로마 대화재 사건을 거쳐

이제는 산헤드린 세력의 박해가 아닌 로마 제국이 박해하는 세력이 되어 더욱 강력한 박해를 가할 때 이에 대해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의 복음(하나님 나라)을 파수하고 전파하며 오히려 부흥하고 성장해 나갔던 복음의 2세대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공동서신 9권의 이야기로 정리된다.

조병호는 이러한 포물러를 다시 아래의 표와 같이 7개의 Step으로 나누어 각 Step마다의 과정을 만들었다.(그림2)⁸



위와 같이 구성된 7개의 Step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과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는 Pre-Step1과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성경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Pre-Step2로 나누어 성경 66권을 알아가기 위한 기초 도입 부분으로 만들었다. 이후 66권의 성경을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⁸ 통독원 제공.

7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정리하고 있는 *Step1*과 다시 이 *Step1*을 세분화하여 66권의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 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는 *Step2*, 그리고 다시 *Step2*를 더욱 세분화하여 66권의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 줄기로 엮어낸 *Step3*, 그리고 다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성경 66권속에 담겨 있는 바른 기도를 알아보고 성경에 나타난 바른 기도를 통해 성경적 기도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Step4*,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역사적 관점에서 이야기로 묶어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정리한 *Step5*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포플러를 가지고 모든 부모가 자기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Family School*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통성경학교

통(通)성경학교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는 믿음과 고백을 바탕으로 성경 전체를 누구나 ‘이야기(*Story*)’ 로 말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에서 소개한 통성경 포플러의 7단계 과정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200시간(강의 30시간, 예·복습 170시간)을 공부하여 특별히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성경을 통(通)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을 돕는 학교를 말한다. 이 통 성경 학교는 전체 100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고, 또 ‘통성경 렉처리코스’ 를 이수한 전문 강사들이 강의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통성경 학교의 커리큘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2> 통성경학교 커리큘럼⁹

PRE-STEP1 그 순간	1강	왜 5세인가?: 디모데와 사두개파 - 큰 그림 가르치기
	2강	‘그 순간’ 이야기1: 성막과 성전
	3강	‘그 순간’ 이야기2: 너희 몸이 성전
	4강	제사장 나라
	5강	하나님 나라
PRE-STEP2 성경과 영성	6강	성경은 어떤 책인가?
	7강	영성이란 무엇인가?
STEP1 제사장나라 하나님나라	8강	성경 7개 트랙
	9강	모세5경: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가?
	10강	왕정500년: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11강	페르시아7권: 왜 스룹바벨, 에스더, 느헤미야는 동족들에게 존경받았는가?
	12강	중간사400: 왜 유대인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로 분파되었는가?
	13강	4복음: 왜 예수님은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 세리, 창기를 친구로 여기셨는가?
	14강	사도행전30년: 왜 대제사장 세력은 스테반, 야고보를 죽이고 바울을 30년 동안 때렸는가?
	15강	공동서신9권: 왜 로마는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해 바울을 경호해주다가 죽였는가?
STEP2 하나님의 마음	16강	하나님의 마음 / 열방을 향한 꿈
	17강	만나세대 / 신앙 계승
	18강	천년 모범 / 마음과 지혜

⁹ 통독원 제공.

	19강	사랑의 줄 사명의 줄 / 절망 앞에 선 희망	
	20강	징계, 희망의 디딤돌 / 재건 공동체	
	21강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 기쁨을 위한 탄생	
	22강	한 영혼 사랑 / 용서를 향한 열정	
	23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 열리는 제자 시대	
	24강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25강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S T E P 3 성 경 줄 기	모 세 5 경	26강	성경 66권이 1권
		27강	원역사
		28강	족장사: 한 민족과 모든 민족
		29강	입애굽과 민족
		30강	출애굽과 제국
		31강	세계 선교의 꿈 - 제사장 나라
		32강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33강	만나세대
		34강	만나학교 졸업
		35강	약속의 땅 입성
		36강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37강	교육의 성공 사례
		38강	미스바 세대
	왕 정 5 0 0	39강	왕정의 시작
40강		세 번의 기름부음: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41강		하나님의 종 다윗	

년	42강	솔로몬과 시가서
	43강	하늘 보석 읍
	44강	남북 분열 200년
	45강	요나의 기적
	46강	북이스라엘의 멸망
	47강	베들레헴의 목동들
	48강	남유다 멸망
	49강	잡간의 징계
	50강	역대기 숲
페르시아 7권	51강	포로민 설득
	52강	제국 변동의 밑그림
	53강	성전 재건
	54강	에스더의 파티
	55강	에스라의 권한
	56강	성벽 재건
	57강	고백과 침묵
중간사 (400년)	58강	헬라제국과 중간사1: 헬라 제국과 모세5경
	59강	헬라제국과 중간사2: 수전절과 사두개파
	60강	로마제국과 중간사1: 하스몬 왕조와 헤롯 왕조
	61강	로마제국과 중간사2: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사복음서	62강	예수님 탄생
	63강	공생애 3년: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
	64강	공생애 3년: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
	65강	공생애 3년: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 예수님

		66강	마지막 일주일: 산헤드린 재판과 빌라도 재판
		67강	십자가 승리 -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30년	68강	열리는 제자 시대: 그리스도인 탄생
		69강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70강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71강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72강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73강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
		74강	기독론과 기적의 편지
		75강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공동서신 9권	76강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77강	요한의 사랑 선언 편지
		78강	새 하늘과 새 땅의 노래
		79강	역사순 통독
STEP4 성경을 통(通)한 기도	80강	엘리에셀의 기도	
	81강	모세의 기도	
	82강	한나의 기도	
	83강	다윗의 기도	
	84강	솔로몬의 기도	
	85강	예레미야의 기도	
	86강	느헤미야의 기도	
	87강	예수님의 기도1	
	88강	예수님의 기도2	
	89강	시므온과 스테반의 기도	

	90강	바울의 기도
STEP5 Family School 이야기 전도	91강	모세 - 나라 세우기
	92강	다윗 - 민족 통일하기
	93강	사마리아인과 앓수르 제국
	94강	성경과 앓수르 제국
	95강	유대인과 바벨론 제국
	96강	성경과 바벨론 제국
	97강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페르시아 제국
	98강	유대인과 그리스인과 헬라 제국
	99강	성경과 로마 제국
	100강	부모가 자녀에게 -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이와 같은 커리큘럼 가운데 연구자는 *Step3* 성경 40줄기 부분을 가지고 연구자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안산 시온성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약간 수정하여 약3 년간 성경 공부를 진행함으로 통성경을 통한 회중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회중의 변화에 대한 신학적 이해

개인 - 신학자 박봉량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체에 분명한 목적과 방향제시 등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구성원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가 아무리 좋은 목적과 방향을 목표로 제시하더라도 구성원 개인의 변화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 발전되어 갈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인 개인의 최종 목적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⁰ 이것을 개인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연구자는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서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성서는 거의 유일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봉량은 성서를 계시의 증언이라고 정의했는데, 기독교에서 계시는 원리나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건,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행동, 즉 말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박봉량은 성서는 회랍적 의미에서 어떤 원리가 아니고 히브리적 의미에서 행동적인 말씀,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한다.¹¹ 그리고 교회는 과거에 일어난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적 행동의 기록인 이 성서를 선포함으로 이 성서를 믿는 성도들은 회상¹²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회상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성서는 계시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박봉량의 주장에 대해 연구자는 동의한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성격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고 세상이 그를 바라보는 방식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타고난 유전적 성향과 환경적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성인 초기에 이르게 되면 하나의 독특한 심리적

¹⁰ 에베소서 4장 13절(개역한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리니.”

¹¹ 박봉량, *교의학 방법론(II)*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314.

¹² 박봉량은 이러한 회상의 행동을 성령의 행동이요 신앙의 사건이라고 말한다. Ibid.

특성으로 굳어져서 거의 다 완성이 되고 이후에는 성격의 변화가 있다 해도 성인기 초기까지 만들어진 성격의 큰 틀 안에서만 변화될 뿐이다.¹³ 따라서 사람은 결코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 이미 굳어져버린 성격을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서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에 따라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어떤 한 사건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특별한 경우로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그렇게 변화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역시도 성인기 초기까지 만들어진 성격의 큰 틀을 벗어나는 변화 즉 삶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는 없다.

박봉량은 과거에 한 번만 역사적 사건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행동에 관한 기록 즉 성서를 통해 ‘지금’, ‘여기서’, ‘나’에 대한 사건(하나님의 행동)으로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성서가 가지고 있는 권위이며 이러한 이유에서 교회는 성서는 영감된 책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서가 가지고 있는 권위의 궁극적인 근거는 영감된 책이라는 데 있다. 박봉량은 성서의 영감에 의해서 성서는 역사의 기록이며, 동시에 생명이 일어나는 사건의 책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연구자는 이 생명이 일어나는 사건의 책인 성경을 통해 심리학에서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성격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기독교 교회사나 선교사(宣敎史)를 볼 때 이렇게 바뀐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있고, 또한 그렇게 바뀐 바로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교회는 교회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경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인기 초기까지 만들어진 그래서 이미 굳어져버려, 교육이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게 된 개인의

¹³ 프로이드 심리검사연구소, *EBS 유아성격검사* (EBS MEDIA, 2015). 2.

그 성격을 변화하게 한다.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서의 권위이며 생명이 일어나는 사건의 책인 성서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성서를 중세 시대에는 봉인을 하여 일부 종교적 기득권들만이 소유하고 해석 가능하게 했었다. 문제는 그렇게 성서를 소유하고 해석 가능한 권한을 가진 일부 종교적 기득권자들은 성서를 바르게 해석하여 생명이 일어나는 사건의 책인 성서가 개인의 삶 속에서 성서의 권위를 발하여 변화를 일으키도록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로 성서 속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행동을 이용해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려했고, 자신들이 쌓아 놓은 권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일어나는 사건의 책인 성서를 이용해 오히려 생명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았고, 개인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성서를 이용해 오히려 그 변화를 막아버림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끈고히 하는데 사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1519년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는 바로 성서가 모든 사람들의 손에 주어졌다는 점이다. 즉 생명이 일어나는 사건의 책인 성서가 일반 대중에게로 들어가 다시금 성서 속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행동이 ‘지금’, ‘여기서’, ‘나’ 에 대한 사건으로 일어남으로 개인의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대중에게로 돌아온 성서를 대중은, 특히 개신교회는 대중들에게 성서를 알리기 위해 수많은 성서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놓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쏟아져 나온 많은 성서 교육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개인의 변화가 미비함으로 기대한 만큼 효과를 얻지 못했다.

가정 - 기독교 교육신학자들의 주장을 중심으로

가정은 개인이 이루는 최소한의 공동체라는 점에서 볼 때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변화된 개인에 의해 최소한의 공동체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 가는지, 이를 통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가능성은 어떠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최소한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 공동체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변화된 개인에 의해 가정 공동체가 변화되어 갈 수 있지만 반대로 변화된 가정 공동체로 인해 그 가정에 속한 개인이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신대학원 기독교 교육과 교수인 이금만은 그의 저서 『교회 교육 청지기를 위한 34걸음 신앙교육 이야기』¹⁴에서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의 교육의 장은 가정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¹⁵는 말씀대로 율법, 직업 기능, 결혼생활을 가르치는데 3세부터 쉼마교육¹⁶을 시작했고, 여기서 부모, 제사장, 예언자, 현자 등이 교사를 담당했는데, 그 가운데 부모의 비중이 상당히 컸다고¹⁷ 말한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¹⁴ 이금만, *교회 교육 청지기를 위한 34걸음 신앙교육 이야기*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0).

¹⁵ 잠언 1:7.

¹⁶ 신명기 6:4-9.

¹⁷ 잠언 1:7-8; 4:1-4; 6:20; 13:1; 신4:9-10; 6:7; 6:20-25; 11:19; 11:32-46.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스라엘의 들으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웨마¹⁸를 떠올렸을 것이고, 웨마는 다섯 살이 되기 전부터 암기하고, 매일 수십 번 반복했던 하나님의 율법 중 한 구절이었는데 그 내용은 첫째가 주님을 고백하고 둘째가 그분을 사랑하며 셋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넷째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하비 블루던, 로리 블루던은 그들의 책 『기독교적 고전교육』¹⁹에서 말하고 있다. 즉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작함으로 이를 통해 가정 공동체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교육도 그럴 수 있겠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정 공동체의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통한 신앙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의 교회가 가정 교회를 지향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성서 교육의 시작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에게 성서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피츠버그 신학대학원 기독교 교육학 교수인 손 디모데는 공동체 정체성을 위한 교육 목회를 설명하면서 *James Hoperwell*의 주장을 근거로 세계관의 4가지 종류(성서주의적 세계관, 영지주의적 세계관, 경험주의적 세계관, 카리마스마적 세계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본 논문과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성서주의적 세계관에 대해 말하기를 이

¹⁸ 신명기 6:4-9 “ 4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¹⁹ 하비 블루던, 로리 블루던, *기독교적 고전교육*, 김선화 역 (서울: 꿈을 꾸는 사람들, 2008), 41.

성서주의적 세계관은 오로지 성경의 관점에서 공동체의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세계관으로서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성경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떠한 세속적 지혜나 지식도 권위를 얻지 못하므로 오로지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성경 말씀이 권고 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성서주의적 세계관은 대체로 세속적 사회를 멀리하며 때에 따라 의도적으로 공동체의 신앙문화를 세속 문화와 격리하기도 하거나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공동체 스스로가 세상과 격리되어 세상과 대항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다.²⁰

그러나 이런 염려와 부정적인 견해도 불구하고 성서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변화를 이끄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감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교수인 김영래는 미래교회를 위한 희망적 트렌드를 설명하면서 혁신적인 목회자이며 교회건설턴트인 *Will Mancini*가 제시한 6가지를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성경적 정의(*Biblical Justice*) 운동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한다.²¹ 이것은 지도자를 고용하여 화해를 이루며 가난한 자를 돕고 병자를 돌보고 차세대를 교육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단위가 되어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것을 말한다. 물론 여기에는 일부 신학적 문제를 드러내는 이들도 있겠지만 김영래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다분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일부 신학적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 잡아 가며 성경적 정의 운동이 미래 교회의 트렌드로 바르게 자리 잡아 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가정에서부터의 성경 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²⁰ 손디모데, *공동체 정체성을 위한 교육 목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2), 196.

²¹ 김영래, “미래교회 트렌드 읽기(1) 연재를 시작하며,” *국민일보*, 2012. 9.3.

왜냐하면 올바른 성서 교육을 통해 가장 최소 단위의 공동체인 가정이 먼저 변화될 때 개인도 교회도 변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 -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을 중심으로

칼 바르트는 교회는 말씀과 계시와 관계되어 있다고 말한다.²² 그러나 굳이 이러한 칼 바르트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된 개인 또는 가정이 합력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야 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이를 전제로 교회가 변화하고 발전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정체되어 있거나 이미 죽은 공동체라 할 수 있다.

교회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 선 검처럼 예리하고 살아 역사하는 힘이 많아 운동력이 있다.²³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성도들이 교회에 세워져 있을 때 그 교회는 당연히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 발전,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교회의 끊임없는 변화, 발전, 성장을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성의 문제로 해석한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위르겐 몰트만이다. 위르겐 몰트만은 20세기 후반 세계의 신학적 패러다임을 형성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가 제시한 신학적

²² 칼 바르트, *교회 교의학 I/2*, 신준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448.

²³ 히브리서 4:12(개역한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페러다임 가운데 삼위일체론은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속에서 신학적으로 고민하고 제시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몰트만은 오늘날의 교회가 위기와 불안에 직면하여 그것의 뿌리와 근원인 “예수님, 그분의 역사, 그분의 현존과 그분의 미래로 돌아가야 한다.”²⁴고 주장함과 동시에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권위적이고 지배적이며 억압적인 가부장적 관계성이라고 해석했다.²⁵ 따라서 교회가 예수님의 역사, 그분의 현존과 그분의 미래로 돌아가지 못할 때 사회는 권위적이고 지배적이며 억압적인 가부장적 관계성을 통해 상대방을 지배하고 억압함으로써 결국은 서로를 불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몰트만은 새로운 관계성의 신학을 필요로 했고, 이러한 관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제시한 것이 바로 사권의 관계였다.

이 사권의 관계란 관계를 이루는 구성원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가 동등하게 관계하며 서로 도와주고 보완하는 관계를 말한다. 그는 이 사권의 관계를 가지고 삼위일체론을 새롭게 구상, 제시,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삼위일체의 사권의 관계 속에서 성령을 통해 모든 피조물은 사랑으로 성령의 사권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랑은 사권을 세우고, 이를 통해 자유를 얻게 되며 자유는 자신의 특징을 가진 개체들의 활동 영역을 넓혀 준다고 주장했다. 즉 자유 없는 사랑은 개체의 다양성을 막으며, 사랑 없는 자유는 공동의 것과 결합하는 것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삶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사권은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형성하며 동시에 통일성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성과 다양성의 일치

²⁴ 이형기, *알기 쉽게 간추린 몰트만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157.

²⁵ 위르겐 몰트만,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채수일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71.

몰트만은 성령의 삼위일체적 사킴이라고 말한다.

성령의 삼위일체적 사킴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인격들과 인간의 사킴들만이 아니라 자연의 사킴들을 파악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사킴들은 자연의 사킴들의 생태적 체계(*ecosystem*)안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들과 함께 삶의 에너지를 교환함으로써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이 성령의 삼위일체적 사킴 안에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으며 사킴들의 형식 속에서 창조되었다. 즉 공동체화가 피조물들의 삶의 원리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화란 단일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들과 종류들의 더 풍요로운 다양화를 뜻한다. 왜냐하면 모든 새로운 현실과 함께 가능한 것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많은 정보의 조직과 더 많은 에너지 교환이 서로 교환 가능하게 되면 될수록 삶을 생동하는 존재들과 그들의 관계들의 다양성 속에서 더 풍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적 삶의 진화의 과정 속에서, 자기를 분리시키고 고립시키는 생물들은 그 유연성을 잃어버리고 경직된다.

몰트만의 이러한 성령의 삼위일체적 사킴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통일성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은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사킴을 통한 공동체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킴을 통한 공동체화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교육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그러나 현대 사회 속에서의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 이유는 당연히 교회 내에서의 성경교육의 약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교회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넘쳐나고 성경을 소개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 보급되지만 정작

교회 내에서 성경을 제대로 아는 이들은 많지 않은 기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대의 교회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사قم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 - 신학자 안병무를 중심으로

약 2,000년의 기독교 교회사를 통해 살펴 볼 때 성경의 진리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²⁶을 선포해왔다. 물론 이것은 성경을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한 반면에 진리인 성경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주는 말씀이기도 하다. 성경은 또 말하기를 ‘주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²⁷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몰트만은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이야말로 성서적 전통이 말하는대로 하나님 신앙과 자유롭게 되려는 인간의 의지를 잘 조화시켰다고 말한다. 해방신학은 보수정치와 기독교 사이의 제휴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은 보수주의 교회세력과 충돌한다. 왜냐하면 해방신학은 이론이 아니라 프락시스에 대한 반성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폭력과 부정의로부터 가난한 자들을 변호하고 해방시키려는 프락시스의 역사에 근거한다.²⁸

이러한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은 한국의 안병무의 민중신학과의 접목점을 이룰 수 있다. 안병무에 따르면 예수는 일차적으로 배고픈 자들에게 밥을 주고 병든 자들을 고쳐 낫게 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예수 운동의 궁극적 목적은 이런

²⁶ 이사야 61:1.

²⁷ 고린도후서 3:17.

²⁸ 위르겐 몰트만, *생명의 영*, 김균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151-168.

일차적인 문제의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품은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있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결코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개인적 욕구에 사로잡혀 있던 저들이 그것에서 해방(자기초월)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원이 되도록 변화시켜 가는 것이 예수 운동의 성격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민중은 자기의 가진 것, 집과 재산과 심지어는 가정마저도 버리고 급기야는 변화를 갈망하며 기존 체제의 아성인 예루살렘에까지 예수를 따라 올라가 악한 체제에 도전했던 자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성령과 인격적인 만남(성령 체험)을 통해 심적인 평안(자유)을 느낌과 동시에 그들의 정치의식이 완전히 깨어나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체제의 구조, 그 나라의 정치, 경제적 구조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싸우게 된다.²⁹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 상황의 카이로스를 인식하면서, 자유에 대한 성서적 전통들에 비추어서 역사적 프락시스를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병무는 한국 교회에서는 성서보다 앞서 교리가 전제 되어 있기에 교리가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 절대 군림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성서마저도 거기에 종속되어 버렸다고 말한다. 그 결과 한국 교회는 성서만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성서의 권위를 빌어 어떤 특정한 교리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한갓 편리한 도구로 성서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말한다. 왜냐하면 일단 어떤 교리체계에만 승복하면 거기에 맞도록 성서를 얼마든지 이리저리 뜯어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³⁰ 그러나 이렇게 되면, 성서지상주의를 내세울수록 실상은 성서는 버림받고 무시를 당하게 된다.

²⁹ 안병무, *민중신학이야기*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226-227.

³⁰ *Ibid.*, 48.

그렇기에 한국 교회의 성서 읽는 모습을 살펴보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성서를 읽는 것이 아니고 단지 무조건 성서를 암송을 한다. 이렇게 반복해서 무조건 읽고 외우다 보면 깨달음이나 구원이 온다는 것이고 그래서 성서는 무조건 읽어야 하고, 비판 없이 읽어야 하고, 읽으면 은혜로운 것이다라고 생각해 왔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 안병무는 교리란 성서에서 추려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추려내는 입장은 그 시대의 것이며 여러 다른 동기가 얽혀 있기에 그런 교리에 예속될 것이 아니라 성서는 내용이 중요하기에 그 내용을 이루고 있는 변화된 민중을 바르게 봐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성서의 중심이 민중 사건이었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민중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병무는 한국 교회가 이데올로기적 사고에서 벗어나 바르게 성서 읽기를 시작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성서 속의 깨달아 변화된 민중을 보게 되고 그 민중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삶도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서를 통해 교리를 찾고 재해석하고 대답을 찾으려 하기 전에 먼저 해석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실하게 성경이 민중들의 변화되는 삶의 이야기로 읽혀지도록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성서를 통해 새롭게 변화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회중의 변화에 대한 성경적 이해

40줄기 중에서 개인 - 야베스의 지경을 중심으로

야베스(*Jabesh*)³¹의 이름의 뜻은 슬픔 또는 수고로이 낡음 이라는 뜻이다.

³¹ “역대상 4:9~10은 야베스가 지명으로 나오는 역대상 2:55에 해설을 붙이려고 한 것이지만

그는 유다 지파의 사람³²으로 그가 태어날 때 모친이 몹시 힘들게 출산했다고 해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여기에는 학자들마다 여러 견해가 있다. 어떤 이들은 야베스가 사생아라고 하는 이들도 또 어떤 이들은 야베스가 장애인이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왜냐하면 당시 이름에는 그 한 사람의 상황이나 환경 등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건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름에는 항상 다른 이름을 붙여야만 비로소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영향력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그가 사생아였든, 장애인이었든 고대 중근동의 여러 상황 속에서도 그는 지경³³을 넓혀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이다. 10절에 나오는 근심이란 말과 9절에 나오는 수고하다 라는 말은 그 어근이 같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든지 참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하면 반드시 들어 주신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당시의 사람들은 지경에 대한 개념이 있지 않았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경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범위를 누구도 넘어설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조병호는 그의 책 『성경과 5대 제국』³⁴에서 자연의 모든 경계³⁵와 거주와 나라와 민족의 지경을 이미 태초부터 정하시는 분은

의미상은 다분히 신학적이라 할 수 있다.” J.M 마이어, *국제성서주석*, 이환진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132.

³² 고탓 집안에 속한 서기관 족속인 야베스 가문을 창시한 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다.

³³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경이란 단순히 땅의 경계를 말한다고 볼 수 없다. 그것은 삶의 경계가 될 수도 있고, 지식이나 경험의 경계가 될 수도 있다. 바꿔 말하면 야베스가 말하는 지경이란 모든 ‘경계’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³⁴ 조병호, *성경과 5대 제국*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1), 119.

³⁵ 욥기 38:8-11.

하나님이시라고 말한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지경을 넘어 제국으로 나아가려는 앓수르 제국을, 민족의 지경을 넘지 않으려는 요나를 설득하셔서 앓수르에게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심으로 니느웨에 거주하던 12만 명의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이들을 살려내시기도 하셨다³⁶고 말한다.

야베스가 이렇게 지경에 대해 성경적인 개념을 확립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연구자는 야베스의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성경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³⁷ 즉 야베스는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부정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던 것인데,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신앙교육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철저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진 이 유다 가문을 통해 이 땅에 성육신하게 된 것이다. 철저한 말씀 교육과 그에 따른 기도를 통해 야베스는 땅의 지경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을 것이고 그에 따라 그는 자신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을, 땅의 지경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지경의 확대를 경험하게 된 개인은 그 생각의 범위도 개인에 머물지 않고 그 지경이 넓어져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으로 그 지경이 확대되어 가게 된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지경을 누구도 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경을 넘어서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의 복음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이고

³⁶ 요나 4:11.

³⁷ 신명기 11:19.

명령이기 때문이다.³⁸ 따라서 성경을 통해 지경의 확대를 경험한 사람만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0줄기 중에서 가정 -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요셉을 중심으로

창세기 31장 37절³⁹에 보면 형제 갈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라반과 야곱이 서로 추격하고 도망치는 가운데 야곱은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라고 항의 한다. 여기에 נַח<악호>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내 형제와 너의 형제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겼다’ 고 표현한다. 본디 라반은 야곱과 피를 나눈 형제였으나 함께 사는 과정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 대적하는 관계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이영재⁴⁰는 그의 일점일획 말씀묵상(#129)에서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이 브두엘인데 브두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사촌지간이다. 그런데 브두엘의 아들이 라반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기 때문에 라반과 야곱의 촌수는 육촌지간이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말 성경인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 또는 표준새번역 등에서 라반을 외삼촌이라고 번역하는 까닭은 라반의 누이 리브가를 중심으로 보면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창세기 29:12에서 야곱을 라반의 생질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이영재는 외삼촌이나 생질이란 용어들은 고대 족장시대의 용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³⁸ 사도행전 1:8.

³⁹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개역 개정).

⁴⁰ 이영재, 김범식, 우진성, *일점일획 말씀 묵상* (과천: 도서출판 IBP, 2018), 238.

이렇게 볼 때 창세기 27장에서 31장은 라반과 야곱 사이에 형제의 우애가 완전히 깨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물질을 탐내는 세속적인 라반은 자신의 형제 야곱을 속이고 임금을 주지 않고 착취한다. 그러나 마침내 야훼의 귀환 명령⁴¹으로 야곱은 그의 네 명의 아내(레아, 레아의 여종 실바, 라헬, 라헬의 여종 빌하)를 데리고 라반의 집을 탈출한다. 그러자 라반이 칠일 간 야곱을 추격하여 야곱을 따라 잡았다. 그러나 야곱을 해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⁴² 라반은 야곱과 여갈사하두다(갈르엣)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여기서 원래 한 형제였던 야곱과 라반은 영영 갈라서게 되는데 이는 후일에 라반으로부터 나온 아람족의 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맹렬한 전쟁을 벌이는 관계로 이어져 나가게 된다.

이처럼 형제 살해 및 갈등의 주제가 창세기 전반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된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⁴³ 셈과 함이 갈라진다.⁴⁴ 아브람과 조카 롯이 서로 갈라서게 되고,⁴⁵ 이삭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은 이삭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⁴⁶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하고,⁴⁷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편애하는 동생 요셉을 질투해서 살해하려고 했다.⁴⁸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 야곱이 사망한 후에는 애굽의

⁴¹ 창세기 31:3.

⁴² 창세기 31:24.

⁴³ 창세기 4:8.

⁴⁴ 창세기 10장 전반.

⁴⁵ 창세기 13:11.

⁴⁶ 창세기 25:12-18.

⁴⁷ 창세기 27:41.

⁴⁸ 창세기 37:18-20.

총리가 된 동생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를 할까봐 전전긍긍(戰戰兢兢)한다.⁴⁹ 형제 살해 내지는 형제 갈등의 주제가 창세기 내내 흐르는 가운데 라반과 야곱이 서로 헤어지는 이야기가 놓여 있는 것이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형제임을 아담의 계보와 아브라함의 축복받은 이야기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전쟁과 살육과 살인으로 얼룩진 인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 그 원인을 창세기는 아프게 밝혀주면서 그 해법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즉 형제의 사랑을 회복하여 평화를 되찾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바로 성경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형제 갈등에서 연구자가 주목해서 보는 사람은 요셉이다. 요셉은 매우 심각한 형제 갈등에서 굉장한 피해자가 된 사람이다. 그런 그가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제들을 아버지 야곱의 사후에도 여전히 용서할 수 있었던 것⁵⁰은 무엇보다 그가 그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곳은 창세기 39장이다. 여기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적(性的)으로 유혹을 받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한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⁵¹

즉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코람데오(*Coram Deo*)⁵² 신앙을 잘 교육받았던

⁴⁹ 창세기 50:15.

⁵⁰ 창세기 50:15-21.

⁵¹ 창세기 39:9.

⁵² ‘*Coram Deo*’는 ‘하나님의 앞에서’라는 라틴어다.

것이다. 이 코람테오 신앙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벤엘’에서 경험했던 바였고,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흉년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결실을 거둠으로 경험했으며,⁵³ 그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경험했던⁵⁴ 신앙이었다. 따라서 비록 자신의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 지난 세월 동안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경험했던 요셉이었지만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고생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아버지 야곱이 사망한 후에는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의 형제들까지도 용서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의 효과는 오늘에도 여전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각 시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40줄기 중에서 교회 - 사도행전 9장 31절, 11장 25절, 26절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9장 31절에는 초대 교회의 모습에 대해 아주 간단명료하게 서술되어 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는 오늘날에도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초대 교회의 모습은 성령께서 직접 인도하셨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많은 이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곳은 27절~29절까지의 말씀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울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영혼육의 강건함을 회복하게 되었고 이후 회당에서 예수가

⁵³ 창세기 26:12.

⁵⁴ 창세기 22:1-18.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게 된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떠나 이방 기독교도가 된 사울을 죽이고자 한다. 이에 사울은 그곳을 빠져 나와 예수의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였지만 제자들이 변화된 사울을 의심함으로 이 일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바로 이 때 바나바가 중재에 나서게 되는데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했는지를 전했고, 이에 제자들은 사울을 그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사울을 데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는 것이다. 바나바가 아무리 제자들에게 신임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바나바의 설명을 듣고 제자들이 100% 사울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테반 집사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가 어찌보면 혼자만의 체험을 가지고 와서 예수가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누가 쉽게 그 말을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이 일은 옆집에서 돈 몇 푼 빌리는 일이 아니라 자신과 또한 함께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 걸린 일이니 아무리 바나바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해도 사울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의 설명을 들은 주의 제자들은 사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를 레너드 스윗의 레러티브 스토리로 전개해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제자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 맞게 살아가는 서민이었다. 세리였던 이들은 세리로서 동족들의 피를 빨았고, 어부였던 이들은 뱃사람으로 하루하루 그물을 손질하고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야 했다. 억압받고 놀리는 삶을 살던 이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야

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은 드디어 메시아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 모인 제자들은 약 3년의 삶을 통해 예수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제사장 나라가 더욱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예수를 통해 구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를 향해 있었고, 그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됨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제자들은 대제사장 세력을 중심으로 한 산헤드린 세력들과 세상 권력(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았던 로마 제국)에 대해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고 담대히 세상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에 대해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대제사장 세력들은 더욱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강하고 넓게 확장되어 갔다. 그렇게 회당이나 성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는 그 수가 날마다 증가함에 따라 조직을 갖추기 위해 새로이 일곱 명의 집사를 세워 교회가 더욱 견고히 세워져 나가도록 했다. 그러던 중에 산헤드린 세력에 의해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 일로 모두가 애통해 하던 중에 바나바를 통해 스테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란 청년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이 사울을 의심하였으나 바나바의 중재와 성령의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울같은 이마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나라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울을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도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렇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많은 이들을 편견없이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임으로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는 교회는 반드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기록된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40줄기 중에서 사회 - 붓기에 나오는 보아스를 중심으로

구약 39권 가운데 비교적 짧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붓기’ 서이다. 짧은 책이지만 붓기서는 제사장 나라의 성공 사례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붓기서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의 땅을 가지지 못하고 종살이만을 했던 이들이 모세의 출애굽 사건 이후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입성 이후로 각 지파 별로 땅을 분배 받고 나자 이들은 땅을 경작하고 자신들의 삶을 가꾸고 영위하기에 바빴다. 그 결과 사사 시대 350년 동안 제사장 나라의 틀은 유지했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소홀히 여기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그렇기에 이 당시에 기드온같은 사사와 그를 따르는 하나님께서 추려내신 300명의 용사들이 있어 미디안으로부터 대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기에 기드온 뒤를 이어 나온 사사들의 수준도 실망스러운 수준들이었다. 기드온의 뒤를 이었다 자청했던 아비멜렉은 권력을 잡기 위해 70명의 자기 형제들을 살해했고,⁵⁵ 그 뒤를 이은 길르앗 사람 야일 같은 사사는 아들 삼십이 어린 나귀를 땀고 성읍 삼십을

⁵⁵ 사사기 9:1-24.

소유했다.⁵⁶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사사 시대에는 각 지파 간에 아름다운 연합도 있지 않았다.⁵⁷ 이에 대해 조병호는 이 시기의 특징을 제사장 나라의 틀⁵⁸은 갖고 있고 하나님의 용서는 크고 이웃과 나눔은 적으며 민족과 민족 사이에 평화가 없는 쓸쓸한 시기였으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아 제사장 나라를 경영해 가시는 350년의 시기가 사사 시대였다고 평가한다.⁵⁹

룻기는 바로 이러한 시기에 제사장 나라의 교육을 잘 받은 한 개인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제사장 나라를 실천해 나갔는지를 다룬 내용이다. 참고로 모세는 신명기 30장 11절~14절⁶⁰을 통해 제사장 나라의 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가까워서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으므로 실천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자녀에게 가르치라⁶¹고 말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제사장 나라의 법을 이토록 강조했던 것일까? 제사장 나라의 법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 즉 첫째로 하나님과의

⁵⁶ 사사기 10:3-4.

⁵⁷ 사사기 19:1-20:48.

⁵⁸ 유월절 어린양으로 시작한 나라,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 장자와 성전으로 이끌리는 나라. 조병호, *그 순간*, (통독원, 2015), 33.

⁵⁹ *CBS Bible College*에서 조병호 박사의 통성경 100강의 중 36강 강의 중에서.

⁶⁰ 11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꼬 할 것이 아니요 13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꼬 할 것도 아니라 14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이 와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⁶¹ 신명기 4:9-10.

관계(하나님의 용서)와 둘째로 이웃과의 관계(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 민족과 민족 사이에 평화)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제사장 나라의 법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이고 확실한 법인지는 롯기를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롯기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에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자 삶의 형편이 어려워 자기 땅의 경작권을 팔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흉년이라는 징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 흉년의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모압으로 이주했던 것이다. 그러나 모압으로 이주한지 10년 만에 남편과 그리고 두 아들과 사별한 나오미는 모압에서 더 이상 살 길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베들레헴에 살 길이 있음을 알고 돌아오고자 했다. 이에 나오미는 자신에게 남아 있는 두 며느리에게 모압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권했다. 이유는 계대결혼법⁶²을 따라도 더 이상 두 며느리에게 남편으로 허락해 줄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결국 나오미는 간절히 매달리는 롯만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그 둘은 당장에 먹고 살 길이 없었다. 마침 추수하는 계절이라 나오미는 롯을 보아스의 밭으로 보내게 되고 그렇게 연결이 보아스와 연결이 된 뒤에 나오미 가문은 계대결혼법을 통해 보아스의 도움을 받아 다시 회복되게 된다는 이야기다.

오늘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무너져 가는 가정이 많지만 그 어떠한 복지 제도로도 그 가정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로 이러한 제사장 나라 제도의 법을

⁶² 신명기 25:5-10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경우 그 남편의 형제가 남겨진 미땅인을 아내로 삼아 자녀를 낳게 하여 대를 이어 가는 제사장 나라의 법을 말한다.”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법제화 시켰다는 사실은 과연 놀라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제 III 장

회중의 변화를 위한 통 성경 40줄기 교육

조병호의 통성경 중에서 *Step3* 성경 줄기 부분과 역시 조병호가 CBS에서 진행했던 바이블칼리지 100강의 중 *Step3*에 해당하는 부분(26강~79강)을 참고해서 연구자가 다시 1년 52주 과정의 커리큘럼을 만들었다. 참고로 이 52주는 교회의 일정과도 맞춰져 있기에 전체를 43강으로 재구성했으며 나머지 9주는 교회의 여러 절기 및 특별 예배(헌신 예배 등)와 같은 행사에 따라 휴강이 된다. 또한 이 커리큘럼은 연구자가 연구자의 교회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것이다. 그 커리큘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시온성 통성경학교 2차 커리큘럼

주	제 목	성경 범위
1주차	오리엔테이션	자기소개 및 과제 안내
2주차	원역사	창세기 1~11장
3주차	족장사	창세기 12~36장
4주차	입애굽과 민족	창세기 37~50장
5주차	출애굽과 제국	출애굽기 1~18장
6주차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 19~40장
7주차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만나세 대	레위기 1~27장 민수기

8주차	만나 학교 졸업	신명기
9주차	약속의 땅 입성	여호수아
10주차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사사기
11주차	교육의 성공 사례	룻기
12주차	미스바 세대	사무엘상 1~7장
13주차	왕정의 시작	사무엘상 8~31장
14주차	하나님의 종 다윗(1)	사무엘하
15주차	하나님의 종 다윗(2)	열왕기상 1~2장
16주차	솔로몬과 시가서	열왕기상 3~11장 잠언, 아가서, 전도서, 욥기, 시편
17주차	남북 분열 왕조	열왕기상 12~22장 열왕기하 1~14장 아모스, 호세아, 요나
18주차	북이스라엘의 멸망	열왕기하 15~20장 이사야, 미가
19주차	남유다의 멸망	열왕기하 21~23장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20주차	잠간의 징계	열왕기하 24~25장 예레미야, 애가, 오바냐, 역대상 · 하
21주차	포로민 설득	에스겔
22주차	제국 변동의 밑그림	다니엘
23주차	성전 재건, 성벽 재건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24주차	고백과 침묵	말라기

25주차	헬라 제국과 중간사(1)	
26주차	헬라 제국과 중간사(2)	
27주차	로마 제국과 중간사(1)	
28주차	로마 제국과 중간사(2)	
29주차	예수님 탄생	마태복음
30주차	공생애 3년	마가복음
31주차	마지막 1주일	누가복음
32주차	십자가 승리 -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
33주차	열리는 제자 시대	사도행전 1~12장
34주차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3~15장 35절
35주차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5장 36절~18장22절 데살로니가전 · 후서, 갈라디아서
36주차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8장23절~19장 고린도전 · 후서
37주차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사도행전 20~26장 로마서
38주차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	사도행전 27~28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39주차	기독교론과 기적의 편지	골로새서, 빌레몬서
40주차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41주차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 · 후서, 유다서
42주차	최후 승리의 노래(1)	요한 일 · 이 · 삼서
43주차	최후 승리의 노래(2)	요한계시록

통성경 40줄기와 개인 변화

그렇다면 과연 이 통성경이 개인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연구자는 안산에 있는 시온성교회에서 약 10개월 동안 주일 오후에 통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였다. 개인의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하는 성경 공부는 자칫 성도들을 지식적으로만 자라게하여 결국은 그들을 지식적으로 교만하게 만드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구자는 안산 시온성교회에서 10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과 몇몇의 교회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약 7년 동안 일대일 제자 양육 훈련을 진행하였고, 뿐 만 아니라 장년 사역을 하면서 약 3년 동안 장년들을 대상으로 책별 성경공부,¹ 다락방 성경공부²등을 통해 마태복음,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등을 가르쳤었다. 그러나 그 모든 성경 공부는 결론적으로 성도들의 삶을 바꾸지 못했고, 다만 성경에 대한 성도들의 지적 욕구를 채우는데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약 1년 동안 진행되는 통성경학교를 통한 성경에 대한 지식 전달이 세상에서의 성도들의 삶에, 또한 교회 내에서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1차 커리큘럼은 조병호의 통성경 포물러 가운데 *Step1*과 *Step2*를 기본으로 진행하였다. 기간은 한 제목당 2주씩으로 약 10개월³의 과정이 소요되었다. 대상은 장년층으로 평균 연령은 50대 초반 정도였으며 참여 인원은 약 150명 정도가 되었다. 주 교재는 통성경

¹ 알란 스트링펠로우, *책별 성경 공부*, 두란노서원 편집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5).

² 육한흠, *다락방성경공부 교재*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1999).

³ 2016년 2월부터 11월까지였으나, 실제 교육한 시간은 약 8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 중간에 헌신예배 등 교회 행사가 들어간 날은 휴강했을 했고, 처음 20분 정도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다시 복습해 주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한 주간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그 다음 주에 참여하는데 그 흐름이 끊어져 공부하는데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길라잡이⁴를 사용했으며, 연구자가 PPT로 보조 자료를 만들어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 커리큘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4> 시온성 통성경학교 1차 커리큘럼

주	제 목	성경 범위
1주	오리엔테이션	교재 구입 및 과제 안내
2주	하나님의 마음	창세기
4주	열방을 향한 꿈	출애굽기, 레위기
6주	만나 세대	민수기, 신명기
8주	신앙 계승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10주	천년 모범	사무엘상1~31장, 사무엘하, 열왕기상1~2장
12주	마음과 지혜	열왕기상3~11장, 잠언, 아가서, 전도서, 욥기, 시편
14주	사랑의 줄 사명의 줄	열왕기상12~22장, 열왕기하1~14장, 아모스, 호세아, 요나, 열왕기하15~20장, 이사야, 미가
16주	절망 앞에 선 희망	열왕기하21~23장,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열왕기하24~25장, 예레미야, 애가, 오바댜, 역대상·하
18주	징계, 희망의 디딤돌	에스겔, 다니엘
20주	재건 공동체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22주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중간사

⁴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2).

24주	기쁨 위한 탄생	마태복음
26주	한 영혼 사랑	마가복음
28주	용서를 향한 열정	누가복음
30주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요한복음
32주	열리는 제자 시대	사도행전1~12장
34주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사도행전13~18:22, 데살로니가전·후서, 갈라디아서, 사도행전18:23~19장, 고린도전·후서
36주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사도행전20~26장, 로마서, 사도행전27~28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38주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40주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요한일·이·삼서, 요한계시록

통성경 40줄기와 가정 변화

성경을 통한 가정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정 예배의 회복이다. 통성경 40줄기를 통해 개인의 변화를 경험한 가족 구성들이⁵ 함께 모여서 통성경 40줄기를 나누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가정 예배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에 조병호는 통성경을 통해 1년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⁵ 모두가 개인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아도 괜찮다. 가족 구성원 중에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적다고 해서 성경을 통한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만들었다. 그 커리큘럼은 아래와 같다.

<표5> 가정예배⁶

월 별	내 용	범 위
1월	새로운 시작	창1~21장
	우리에게 ‘믿음’ 을 물려 주 세요	창22~41장
	유언과 비전	창42~50장, 출1~10장
	기적 같은 이야기	출11~29장
2월	하늘 보석	출30~40장, 레1~10장
	‘거룩’ 은 사랑이에요	레11~27장
	민수기 이야기	민1~14장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	민15~32장
3월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민33~36장, 신1~14장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어요	신15~34장, 시90편
	여호수아와 갈렙의 노래	수1~22장
	사사들의 이야기	수23~24장, 샏1~16장
4월	사막의 오아시스	샏17~21장, 룻1~4장, 삼상1~12장
	다윗의 예선전	삼상13~24장, 시59, 34, 52, 57편
	왜 ‘다윗’ 일까요?	삼상25~31장, 삼하1~12장, 시54, 51편
	천년 모범 다윗 왕	삼하13~24장, 왕상1~2장, 시3편
	솔로몬 이야기	왕상3~10장, 잠1~15장
5월	지혜롭게 살아요	잠16~31장, 아1~6장, 왕상11장
	창조주를 기억해요	전1~12장, 욥1~14장
	이제야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 다	욥15~42장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시1~66편

⁶ 조병호, 365일 성경 통독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6), 10-11.

6월	후손에 이어지는 신앙	시67~118편
	믿음의 그늘 아래서	시119편~150편
	순종이 낳은 기적	왕상18~22장, 왕하1~14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암1~9장, 호1~14장, 은1~4장, 왕하15~16장
7월	임마누엘의 하나님	왕하17장~18장12절, 사1~24장
	치료하시는 하나님	왕하18장13절~20장, 사25~45장
	우리 가정에 바라는 것	사46~66장, 미
	믿음으로 즐거운 가정	왕하21~24장, 습, 합, 나, 율, 렘1~6장
	예레미야의 기도	렘7~28장
8월	물 댄 동산 같은 즐거움	렘29~48장, 왕하25장
	사랑하는 형제에게	렘49~52장, 애, 읍, 대상1~5장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싶어요	대상6~29장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대하1~25장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대하26~36장, 겔1~11장
	누구를 의지할까요?	겔12~32장
9월	하나님께서서 함께 하십니다	겔33~48장
	기도의 사람, 다니엘	단, 스1~4장
	함께 마음을 모아요	학, 슄, 스5~6장, 예1~10장
10월	성벽 재건을 통한 기쁨 나누기	스7~10장, 느, 말
	큰 기쁨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마1~23장
	거친 풍랑을 넘어선 사랑	마24~28장, 막1~13장
	십자가의 사랑으로	막14~16장, 눅1~13장
11월	예수님께서서 부활하셨어요	눅14~24장, 요1~6장
	예수님으로 풍성한 우리의 삶	요7~21장
	복음과 증인	행1~18장 22절, 살전1~5장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살후1~3장, 갈1~6장, 행18장23절~19장, 고전1~11장
12월	오직 사랑으로	고전12~16장, 고후1~13장, 행20장1~6절,

		롬1~7장
	부름 받은 그리스도인의 고백	롬8~16장, 행20장7절~28장, 엡1~3장
	믿음의 가정, 세상에서의 승리	엡4~6장, 빌, 골, 몬, 딤편, 딤후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가정	히, 약, 벧전, 벧후, 유
	그리스도인의 승리	요일, 요이, 요삼, 계

연구자는 2015년에 통 성경학교를 수료하고 나서부터 통 성경 40줄기를 통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큰 아이는 5살(2009년)때 지구본을 보며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보다 한국이 작다고 울음을 터뜨렸던 아이였다.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늘 고민만 했었지 실질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를 몰랐다. 5살 아이에게 나라와 민족을 딱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렇게 6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통성경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이야기로 설명해 줄 수 있었다. 그리고 그토록 춥지만 뜨거웠던 2016년 겨울에 통성경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배운 우리 아이들의 성화로 우리 가족은 서울 시청 광장으로 나가서 목이 터져라 외쳤다.

‘박근혜를 탄핵하라!’

통성경 40줄기와 교회 변화

“심방은 줌...” 목회자 방문 꺼리는 ‘그림자 성도’ (주일예배만 드리고 교류하지 않는 교인) 급증. 이것은 2019년 1월 18일 금요일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의 헤드라인(Head-Line)이다. 그 내용은 오늘날 달라지는 심방의 세태를 고발한 것이다. 그 몇 가지 내용을 다음과 같다.

맞벌이 가정이 늘고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가정 심방”을 꺼리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가정 심방은 목사가 교인 집을 방문해

예배드리고 상담하는 대표적인 목회 활동이다. 교회 규모가 커질수록 가정 심방의 중요성도 커진다. 심방이 아니면 목사들이 교인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아서다. 하지만 요즘 목회자들은 “집에 오시는 건 어려울 것 같다”, “맞벌이라 시간 내는 게 쉽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가정 심방을 거절당하는 일이 많다.⁷

이에 대한 현장 목회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몇 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인천 광림서교회 목사: 가정 심방은 목사가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다가가고 가까워질 수 있는 통로로 교회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드는 출발점이라면서 ‘요즘엔 목사와 교인 사이에 심방을 두고 “밀당”이 벌어진다’고 했다.

오○○ 서울 한남제일교회 담당 목사: 그림자 교인이란 주일예배만 드리고 목사나 교인과 일절 교류하지 않는 교인을 말한다. 오 목사는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교인이 많아지면서 가정 심방이 줄고 있다’면서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생긴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심방 등은 여전히 활발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가정 심방이 힘들어진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박○○ 거룩한빛광성교회 부목사: ‘심방이 목사와 교인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교인을 알지 못하면 설교할 때 공허한 느낌이 크다. 잠시라도 만났던 교인들과는 설교하며 눈도 맞추게 되고 목회적 관계도 깊어져 유익하다. 가정 심방을 원하지 않는 교인들도 직장이나 학교 근처에서 목사를 만나 신앙에 대해 대화할 기회를 마련하는 게 장기적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권했다.⁸

신문의 한 면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과의 현실이다. 우리는 자주 사도신경을 통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오늘날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다. 왜 그럴까? 신문 지면을 통해서도 나와 있듯이 오늘날 사회는 극도로 개인주의화 되어

⁷ 장창일, ““심방은 줌...” 목회자 방문 꺼리는 ‘그림자 성도’ 급증,” *국민일보*, 2019.1.18.

⁸ Ibid.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많은 수의 사회학자들은 포스트모던에 의한 영향이라고 말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 연구자는 달리 생각한다.

사회가 극도로 개인주의화 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의 부재’가 원인이다. 실제로 창세기를 비롯한 성경 여러 곳에서 오늘날 사회와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된다. 사사기 17장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라는 사람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소개하고 있다. 어느 날 미가는 그의 어머니가 준 은 천백을 잃어버렸다. 이에 그의 어머니는 자기가 낳은 아들을 저주했다. 그러다가 미가가 다시 그 잃어버렸던 은을 찾았을 때 그의 어머니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며 축복한다. 여호와와 축복은 잃어버린 은을 찾을 때 받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당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 리가 없다. 뿐만 아니라 미가의 어머니는 그 은의 일부를 가지고 은장색에게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 집에 있는 신당에 두었다. 그리고 미가는 유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온 레위인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로서 그들은 어떤 지파에도, 어느 개인에게도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가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자, 레위 지파는 살아갈 길이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공적 제사가 사라진 상황에서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미가’ 처럼 개인 제사장을 원하는 집에 들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그 집안의 개인 제사장이 되어 주거나 아니면 생업을 찾아 다른 일에 종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해 사사기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⁹라고 당시 시대를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전하지 않는 세대는 그 말씀을

⁹ 사사기 17:6; 21:25.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는 지극히 개인화되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곳은 바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부분이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¹⁰ 이는 예수께서 구약의 예레미야 16장 6절, 7절의 말씀¹¹을 인용하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예수께서 활동하셨던 시대뿐 만이 아니라 구약의 예레미야 당시에든 이러한 개인주의는 이미 그 사회에 만연했다는 것이다. 이 사회에 만연한 극단적 개인주의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극단적 이기주의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 본 연구자는 통성경 프로그램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성경에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모습과 그 비참한 말로가 기록¹²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통성경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사도행전 5장 1절 ~ 11절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초대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속이려 했다가 현장에서 즉사하는 사건은 알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성경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이것이 전부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하나님 나라는 제사장 나라를 품고 있으며 이 제사장 나라를 더 큰 하나님 나라가 품게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¹⁰ 마태복음 11:17.

¹¹ 6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7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피 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¹² 사도행전 5:1-11.

있는 것이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위대한 역사와 연결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바르게 알게 될 때 교회 내의 극단적 이기주의는 경계가 될 수 있는데 이는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도저히 알 수 없다. 전체를 알아야 부분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깨닫게 될 때 교회 내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경계하고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극단적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통성경 40줄기와 사회 변화

앞 장에서 살펴봤듯이 이 사회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극단적 이기주의가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 이기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은 구약성경 예레미야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제 곧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있던 시대였다. 이 시대에도 역시 개인주의는 만연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심판을 선포한 예레미야 앞에서 보여준 시드기야의 모습이였다. 이 당시에 예레미야와 시드기야가 나눈 대화¹³를 살펴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 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¹³ 예레미야 38:14-19.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시드기야는 항복하라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자신의 체면을 이야기하며 끝까지 불순종한다. 나라의 장래보다, 수백만의 백성들의 안위보다 자신의 체면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던 시드기야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해 가는 남유다 왕국과 자신의 신하들과 사랑하는 두 아들의 목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지켜보아야 했다. 그 이후에는 자신의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매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극단적 이기주의가 오늘날 이 사회에도 여전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 극단적 이기주의는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감의 마비라는 모습으로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

2014년 4월 16일, 261명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안타깝게도 바다에 수장된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SNS에서는 유족 등 피해자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글과 행동들이 적지 않게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최근 2018년 12월 18일 강릉의 한 펜션에서 화재로 수능 시험을 마친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친 강릉 펜션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사고를 당한 서울 대성고 학생들을 조롱하고 유족들의 슬픔을 비웃는 글들이 SNS상에 무수히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진 건 한국 사회가 공감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광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공감 능력 결여는 반사회적 행동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 라면서 ‘상대방이 얼마나 아플까 공감을 하지 못하면 폭력 등을 저지르게 된다’ 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적 차원에서 남의 고통에 공감하는 노력도 해야겠지만 법적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 말했다.¹⁴ 또한, 한 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도 이렇게 말한다.

‘한국 사회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있다’ 면서 ‘일베나 워마드에 글쓰는 사람들이 타인의 엄청난 불행까지도 자신의 관심을 얻는 데 이용하는 상황’ 이라고 봤다.¹⁵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사회는 갈등과 반목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3년여 기간 동안에 남녀 간의 갈등의 폭이 커졌다. 그것이 폭발한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바로 혜화역 시위(이수역 사건)가 바로 그것이다. 처음 이 사건이 시작된 계기는 홍익대에서 남성 누드모델이 사진이 누출되는 사건¹⁶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범인이 10여일 만에 빠르게 검거가 되었다. 그런데 홍대 몰카 사건의 피해자가 남성이라서 빨리 수사를 했고, 이는 성별 편파수사라는 논란을 일으키며 여성들 사이에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사건 현장이 좁았고, 그 안에 있던 용의자가 적었기에 빠르게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갑자기 여자가 가해자인 몰카 범죄는 빨리 잡았고, 여자라서 더 가혹하게 처벌 받았다는 프레임으로 바뀌었다. 그러자 이것을

¹⁴ 조효석, “피해자를 조롱... ‘공감 마비’사회,” *국민일보*, 2018.12.21.

¹⁵ Ibid.

¹⁶ 이하 ‘홍대 몰카 사건’이라고 한다.

그대로 믿은 여성들이 온라인¹⁷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옮겨 시위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용했던 비속어들(예를 들어, ‘재기해’ 라는 말은 ‘자살해’ 라는 뜻이다)이 오프라인에서도 여과없이 그대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인권침해 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진보 매체에서는 이것을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었는데 진보 매체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가려주면서 여성들이 왜 분노했는지를 들어야 한다고 오히려 부드럽게 기사화 시켜줬다. 결국 여성들의 이러한 시위는 남성은 강자요 여성은 약자이며, 약자는 무조건 옳다는 프레임이 적용됨으로 여기에는 더 이상의 도덕적 판단 근거나 기준 자체가 사라져 버리고 갈등과 분열만이 심화되는 양상을 초래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바로 오늘날 사회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사사기 19장 이하에는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비참한 이스라엘 12지파의 분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건의 발단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4개월을 지냈다. 이에 그 레위 남편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 첩을 데리고 오는 길에 날이 저물어 기브아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들이 와서 그 레위인을 운간하려 했다. 막을 수 없는 그들 앞에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내주었는데, 이들은 그 첩을 밤새 운간하였고,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첩은 사망하기에 이른다.

그 모습을 새벽에 확인한 이 레위인은 이 첩의 시신을 열 두 토막으로

¹⁷ cf. <https://womad.life/>, <http://www.megalian.com>.

나누어 이스라엘 열 두 지파에 보내게 된다. 이 사건으로 인해 베냐민 지파와 열 한 지파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 베냐민 지파는 600명의 용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진멸되었고, 그제야 나머지 열 한 지파는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리고는 야베스 길르앗 거민을 쳐서 그곳에 젊은 처녀 사 백인을 얻어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들에게 주어 아내 삼게 함으로 베냐민 지파가 진멸되지 않게 하였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사사기는 마무리 된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레위인의 첩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윤간하여 죽였고 이에 대해 나머지 열 한 지파가 보복을 했다는 이야기 아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에 기록된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였더라’ 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는 근거는 신명기 6장 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다. 즉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잃은 세대는 각각 그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였던 것이다.

백성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더 중요시 여겼던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나 한 여인의 아픔을 외면한 채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에 바빴던 베냐민 지파의 그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세우신 열 두 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멸절 되도록 자신들의 분을 풀어내려 했던 이스라엘 열 한 지파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습을 보게 된다.

오늘날 이 시대가 남과 북으로, 동과 서로, 세대간에, 남녀간에, 부한 자와 빈 한 자 사이에 갈등과 분열, 반목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데올로기의 문제,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문제, 문화와 이성의 문제, 물질의 문제 등으로 보이지만 그 속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

실제로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사사 시대였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아픔을 공감했고 그로 인해 긍휼히 여겼으나 자신의 감정대로 돕지 않았고, 말씀에 따라 절차를 따라 어느 누구에게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갔다. 그 결과 완전히 무너졌던 엘리멜렉의 가문은 다시금 룻과 보아스를 통해 회복될 수 있었다.

동일하게 연구자는 공감을 상실한 이 사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가운데 그 뜻을 행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

제 IV 장

프로젝트 실행과정: 안산 시온성교회

프로젝트 순서

먼저, 연구자는 매주 2회에 걸쳐 안산에 있는 시온성교회에서 통성경학교를 진행했다. 본 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임광영)의 영향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이다. 지금까지 직분자 교육은 ‘네비게이트’ 교재를 사용하였고, 그 외 청년회와 교회학교 교사들은 본 연구자가 ‘두란노 일대일 제자 양육’ 교재를 사용하여 교육하였다.¹ 통성경학교의 진행은 첫째로 주일 오후 시간에는 재작년(2017년도)부터 시작했던 구약반을 이수한 인원들을 기반으로 신약반을 진행했다. 시간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약 한 시간 정도로 진행했다. 인원은 구약반을 이수한 이들로 성인 44명과 아이 5명으로 진행하였다. 주교재는 조병호의 통성경 40줄기를 사용했고, 시청각 자료를 따로 만들어 사용했다. 진행은 강의와 과제(성경통독, 주교재 괄호 넣기, 그 외 통성경 포물러 암기)를 병행했다.

둘째로는 구약반을 목요일에 작년 초(2018년도)에 새로이 개설했다. 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약 한 시간 정도로 진행했다. 구약반 인원은

¹ 안타까운 일은 본 연구자가 통성경학교를 진행할 때는 이미 교육국 사역을 다른 사역자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난 뒤였다.

성인 15명이었다. 주교재는 역시 조병호의 통성경 40줄기²를 사용했고, 역시 시청각 자료를 따로 만들어 사용했다. 신약과 마찬가지로 강의와 과제(성경통독, 주교재 괄호 넣기, 그 외 통성경 포플러 암기)를 병행했다. 특히 사항은 목요일 구약반의 인원 구성은 본 교회 교인 7명과 타교회의 교인이 8명으로 구성되었다. 타교회 교인이 함께 하게 된 것은 본 교회에서 이미 2017년도에 통성경을 공부한 이들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통성경을 홍보했고³ 그 이야기를 통해 통성경을 신청한 이들이었다. 연구자는 타교회나 담임 목회자들과 행여라도 갈등이 생길까봐 신청서를 작성해서 각 교회의 담임 목회자의 허락을 받아 오라고 했고, 저들이 실제로 받아 온 것을 확인한 뒤에 구약반을 시작했다.

그 결과 약 7개월이 지난 11월 말에 통성경 신약반은 그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마무리하기 3주 전부터는 통성경 40줄기를 계속해서 시험을 봤다. 결과 마지막 시간에는 두 어 명의 성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통성경 40줄기를 완전히 숙지할 수 있었다.⁴

마지막 시간에는 함께 공부했던 성도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하여 저녁 공동 식사를 준비했고, 주님 안에서 참 행복한 식탁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었다. 이 모든 것들은 목회자의 지시나 계획이 아니었고 함께 공부했던 이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어 자발적으로 진행한 일이었다.

3년 동안 참여 인원 120명, 50명, 15명을 데리고 통성경 프로그램을 진행해 봤는데, 가장 적절한 인원은 약 50명 정도가 좋은 것 같다. 그 이유는 120명은 강사

²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2).

³ 이것은 연구자가 홍보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고 통성경을 공부한 성도들이 스스로 홍보하고 다닌 결과였다.

⁴ 5명의 아이들 가운데 3명이 암기했고, 그 가운데 제일 어린 아이는 9살이었다.

혼자서 케어(출석체크, 숙제검사, 학습 습득 정도 등)하기에 너무 숫자가 많고, 15명은 학습 참여자들을 케어(Care)하기에는 좋으나 공동체 자체가 갖는 힘이 적어 교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설문은 구약 마지막 시간에 한 번 신약 마지막 시간에 한 번 실시했다. 구약 마지막 시간에 했던 설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당신의 나이는?
2. 이전에 성경 공부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공부를 해 보셨습니까?
3. 통 성경에 대한 소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4. 통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통 성경에 기대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5. 이전에 했던 성경 공부와 통성경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6. 통 성경을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이며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7. 앞으로 통 성경에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8. 통 성경을 공부하고 난 뒤에 아이들에게 성경을 이야기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9. 가르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0. 만일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면 시기적으로 언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 통 성경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까?
12. 통 성경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 나의 삶(개인, 가정, 교회, 사회)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통성경 교육을 통한 개인의 변화 사례 연구

여기에 기록된 이들은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실명 전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사례를 본 연구 논문에 기재한다는 부분은 개인들에게 허락을 받았기에 사례 인터뷰 내용만을 특별한 형식 없이 그대로 기록하도록 한다.

우선 통성경 교육을 통한 개인의 변화 사례는 매우 많았다. 그 이유는 통성경 교육을 통한 개인의 변화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변화 사례와 달리 이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큰 수고가 없이도 본인 스스로가 즉각적으로 변화를 알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례1) 올해 60세인 이00 집사는 세 딸을 둔 아버지이자, 교회에서는 안수집사다. 그의 아내는 권사로서 교회의 크고 작은 일에 매우 헌신적이며 못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었다. 그러나 그녀는 재작년 7월 말에 갑자기 소천 했다. 그녀는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였던 것이다. 나름 건강관리를 잘해서 비교적 건강하게 생활했었는데, 재작년 7월 말에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한 지 5일 만에 소천 했다. 이로 인해 그녀의 가족들과 많은 교인들이 큰 상심에 빠졌다. 그녀의 죽음을 두고 목회자들은 ‘천사가 잠시 우리 곁에 머물다 갔다’ 고 말했고 모두가 이 말에 공감할 정도로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이 집사와 세 딸의 충격은 누구보다 컸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염려와 달리 이 집사는 자신의 아내는 가장 행복하게 천국에 거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을 묵묵히 잘 이겨내는 듯했다. 적어도 몇 주간은 사실인 듯했다. 그에게 남아 있는 가족인 세 딸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다. 첫째 딸은 미국 유학 중이었고, 둘째 딸과 셋째 딸도 지방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게 밀려오는 그리움과 상실의 고통은 커져갔다. 그에게 남은 하나의 위안은 색소폰을 연주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던 중 함께 교회에서 색소폰을 연주하던 집사님의 소개로 함께 통성경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처음에는 아무 것도 몰랐고, 그러했기에 통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공부를 할수록 자신이 성경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점차로 알게 되었고 특히 율기 부분을 공부할 때는 크게 위로가 되었다. 모든 것을 인과 관계로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는 인과율(*Causality*)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이것은 말 뿐인 형식적인 고백이나 어떤 위선적이고 신앙적인 고백이 아니라 실제 본인의 마음이 위로가 되고 변화됨을 느낌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고백이라고 한다.

이 집사는 통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 그렇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성경을 공부해 나가면서 그의 삶의 큰 변화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아내와 함께 할 때처럼 얼굴빛이 회복되었고, 다시 아름다운 교회생활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그는 2018년 10월 장로로 피택되어 현재 장로 교육 중에 있고, 올해(2019년) 봄 노회 때 고시를 통해 장로로 안수를 받게 된다.

그는 고백한다. 통성경을 통해 자신의 삶이 바뀌었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새롭게 정립되었노라고, 그는 통성경을 계속 공부해서 말씀에 능통한 장로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겠다고 연구자에게 다짐했다. 연구자는 이 집사에게 어떠한 신앙적 충고나 위로를 한 적이 없다.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롭게 한 분은 성령님이시리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능력이고 통성경의 놀라운 결과라고 연구자는 확신한다.

사례2) 올해 56세인 김○○집사는 사모다. 그녀의 꿈은 남편인 임○○목사와 함께 복지 시설을 설립하여 소외되고 병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다. 그녀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오래전부터 남편과 함께 도배일을 하면서 자금을 모아왔고, 강원도 모지역에 이 꿈을 이루기 위한 건축을 시작하여 2018년 10월 거의 완공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람들 앞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성격은 아니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지금 같이 사는 남편과 재혼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첫 번째 결혼에서 자녀 셋(1남 2녀)을 낳고 생활했지만 결혼 생활은 결국 실패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 동창이기도 한 지금의 남편 임○○목사를 만나 재혼을 했다. 임○○목사는 초혼이었으나 자신의 꿈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김○○집사의 밝은 성격과 착한 마음이 좋아 결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는 매우 밝고 적극적이며 착한 심성을 가졌음에도 ‘재혼’이라는 것이 그녀의 핸디캡이 되어 교회 내에서는 사람들 앞에 리더로서의 역할을 힘들어 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미비했던 것이다. 그녀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없었다.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 이후에 임○○목사를 만나 함께 꿈을 꾸며 살아오게 되었지만 교회에서 사모 라는 위치보다는 집사로 불리는 것을 더 좋아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에 대한 약한 지식 때문이었다고 한다. 목사의 사모로서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성경지식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랐고, 그래서 그 밝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꺼려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는 약 3년의 기간 동안 통성경을 공부하면서 많이 달라졌다. 그녀는 연구자가 진행하는 통성경 프로그램에 그녀의 성격대로 적극적이며 성실하게 임했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많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1년을 공부하고 2년을 공부하면서 성경에 대한 맥이 잡히고 3년째 공부할 때는 성경이 참 재미있고, 유익한 책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확실히 느꼈다고 한다. 통성경을 통해 성경을 알고 난 뒤에 그녀는 지식적으로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현재 구역의 리더로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며 자신 스스로는 통성경을 복습하면서 구역 식구들에게는 성경을 가르치며 함께 공부하고 있다. 구역 식구들도 그녀와 함께 하는 성경공부를 매우 즐겁고 유익한 시간으로 여기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연구자에게 통성경을 통해 부부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자신 있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며 깊은 마음의 마음을 표했다.

통성경 교육을 통한 가정의 변화 사례 연구

통 성경을 통한 가정의 변화 사례도 많았다. 설문을 통해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성경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목회자들처럼 설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통 성경 교육 이후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았고, 성경을 먼저 읽고 가족들과 성경을 이야기로 나눌 수 있어 너무 편하고 좋다는 것이다. 또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자 아이들과 부모들이, 남편과 아내가,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가 많아져서 가정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TV 시청 시간도 줄어들었으며, 무엇보다 아이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변화를 보였다는 것이다.

사례1) 올해 51세인 허00 씨는 신앙생활을 시작한지 30년 이상 된 서리 집사며 올해 권사 임직을 받는다. 그녀는 오랜 시간동안 교회학교 교사로, 사회에서는 직장인으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 연구자와 함께 약 2년 동안 골로새서, 요한복음 등을 공부했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딸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싶었으나 특별하게 기회가 없었고, 딸도 많이 성장했기에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에 성경을 좀더 체계적으로 알아야 바르게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통성경을 신청했다. 통성경을 통해 구약과 신약을 공부했다. 통성경을 통해 공부하는 동안 무엇보다 큰 변화가 생긴 곳은 그녀의 가정이었다. 그녀는 남편과 오래 전에 이혼했었다. 성격 차이로 인한 것이었다. 그로 인해 딸에게 신앙생활과 성경을 교육을 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자신의 말과 가르침이 다른 것 같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 자신감이 없었고, 또한 딸에게도 본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통성경을 공부하면서 무엇보다 집에서 통성경 과제를 하느라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는 모습을 딸이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딸도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그녀의 딸도 이전부터 교회도 다녔고 세례도 받았지만 특별한 열심은 없는 Sunday-Christian이었다고 한다. 그러던 그녀의 딸이 이전과 달리 성경에 대해 열심을 내는 엄마의 변화를 알아보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딸이 먼저 다가와 엄마에게 어떤 공부를 하는지,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녀는 딸에게 통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통성경을 통해 예배의 중요함을 이야기하던 중에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고 한다. 그렇게 그녀는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회복했다. 지금은 교회의 대부분의 공예배(주일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철야 예배)에 그녀와 그녀의 딸이 함께 출석한다. 그리고 여전히 가정 예배도 드리고 있다고 한다. 그녀 자신도 잘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통성경을 통해 딸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기뻐했으며, 딸과 함께 성경을 이야기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했다.

사례2) 올해 64세인 안00 씨는 모태신앙인이며 현재 권사다. 결혼 전에는 열심히 교회를 섬겼으나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 한 뒤에 신앙생활이 소홀하다가 현재 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고 현재 그녀의 남편은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아 부부가 아름답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늘 마음 한쪽이 불편했다. 모태 신앙인이며 현재 교회에서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성경을 잘 몰랐던 것이다. 나름대로 교회에서 진행하는 ‘네비게이토’와 같은 교육 등을 받았고 또 교회학교에서 교사 직분도 꽤 오랜 세월 감당했지만 성경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중에 교회에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했던 통성경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게 되었다. 처음에는 낯선 용어(제사장 나라, 휘장 등)가 나와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만 둘까도 생각했지만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말에 사명감을 느꼈다.

자녀에게는 가르치지 못했지만, 손주들에게는 꼭 가르쳐 주고 싶었다. 인내함으로, 잘못해도, 공부하는 자리는 떠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며 자리를 지켰다. 그렇게 두 번째로 통성경을 공부하고 났을 때 집에서 가족들에게 성경을 이야기로 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작년 10월에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했다. 그런데 며느리가 자신이 해주는 성경 이야기를 너무 좋아했다. 서로가 어렵고 낯선 상황이었지만 성경을 이야기할 때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들어주는 며느리가 너무 고맙고 편해졌다고 한다. 며느리가 아니라 정말 딸처럼 느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통성경 교육을 통한 교회 생활의 변화 사례 연구

설문을 진행해 살펴봤을 때 통성경 교육을 진행 또는 이수한 성도들⁵에서 교회 생활의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통성경 교육생들에게 일어난 가장 큰 교회 생활의 변화는 불평과 불만이 사라졌거나 감소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예배 생활에도 큰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1) 올해 47세인 이00 씨는 신앙생활을 시작한지 30년 정도가 된 서리 집사다. 그녀는 많은 부분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교회학교에서는 교사의 사명을 매우 잘 감당하고 있고, 교회 연극팀에서는 매우 뛰어난 배우이기도 하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보다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기에

⁵ 이하 ‘통성경 교육생’이라 지칭한다.

무엇이든지 배우려 하고 또 잘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도 그녀는 배움에 대한 열의가 있어 사회복지사 공부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성도들끼리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배에 관한 어려움이었다. 통성경 교육 이전에는 예배 중 성경 말씀이 어렵거나 목회자들의 설교 내용이 어려워 설교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시온성교회에서 선포되는 목사들의 설교는 성경의 한 부분(요절)을 놓고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으로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내용이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에 관한 내용이면 그래도 이해되거나 마음에 감동이 있지만, 사사기서나 열왕기서 등 역사서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적인 내용이거나 성경 앞뒤의 내용을 알아야 할 경우에는 이해되는 바도 적고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으며 무엇보다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예배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와 함께 약 3년 동안 통성경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는 성경을 보는 관점도 바뀌고, 예배 중 나누는 성경의 본문도 성경 전체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 본문의 앞뒤의 맥락이 쉽게 파악이 되기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기에 자신이 아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예배와 말씀에 대한 감동도 그 만큼 더 크고 깊어졌다는 고백했다.

사례2) 올해 52세인 박00 씨는 신앙생활을 시작한지 10년 정도가 된 서리 집사다. 그녀는 안산 시온성교회로 전입해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다. 평소에도 내성적인 성격인지라 쉽게 남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쉽게 어울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 남편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결혼 초에만 몇 번 교회를 나왔을 뿐 신앙생활은 거의 하지 않는 상태였다. 자녀는

중학생, 고등학생 아들만 둘인데 중·고등부 예배만 참석하는 정도였다. 그러던 중에 남편 사업장 심방 예배를 받게 되었고 그렇게 연구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그리고 연구자가 오후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 통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2016년)부터 통성경을 공부하게 되었다.

이후 박 집사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통성경학교를 수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경공부반에서 공부하는 분들과 사귀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감을 얻게 된 그녀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고, 현재는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수준이 되었다. 뿐 만 아니라 박 집사는 구역장으로 구역원들에게 자신이 배운 통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구역 식구들도 그녀가 가르쳐 주는 통성경 내용을 좋아해서 구역 모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박 집사 성격도 더 적극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가족들이 말했다고 한다. 그녀는 본 연구자에게 통성경공부가 이렇게 자신의 성격과 교회 생활을 완전히 바꿔 줬다고 행복한 고백을 했다.

통성경 교육을 통한 사회생활의 변화 사례 연구

사례1) 49세 박00 집사는 모태 신앙으로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그는 교회에서 소년·소녀부 부장을 맡고 있다. 참고로 그의 아내 홍00 집사는 유아부 담당 사역을 맡고 있는 아이들 교육에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박00 집사는 유명 통신 회사에 다니는데 그의 성격은 꼼꼼하고 매사에 적극적인 성격의 사람이다. 승부욕도 상당히 강해서 운동을 하거나 그 외에 경쟁을 하는 일에는 언제나 적극적인 사람이다. 그런 성격을 가진 그이지만 직장에서 종교 이야기가 나오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서 어린이부서 부장직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기에 웬지 부끄럽고 누군가 자신에게 교회나 성경에 대해 물어볼까봐 오히려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잘 드러내지 못했다고 한다. 제법 자유로운 직장 분위기 속에서도 적극적인 전도도 하지 못하고 종교 이야기나 교회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았기에 직장 동료들 눈에는 자신이 *Sunday Christian*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통성경 교육을 하면서 성경을 *One Story*로 파악하고 난 뒤에는 직장 내에서 자신도 모르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 뿌듯해한다고 한다. 또한 원래 적극적인 성격인데 이 통성경 교육으로 인해 성경에 대한 자신감이 붙은 그는 전도에도 적극적으로 되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통성경은 역사와 맞물려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기에 성경을 역사적 사건과 함께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귀기우려 듣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고 한다.

통성경 교육을 통한 변화는 개인, 가정, 교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설문을 통해 볼 때 느꼈던 것은 이 변화는 성도들의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여기까지는 아직 많이 미비함을 느끼게 되었다. 설문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보통은 구체적인 *Story*보다는 단편적인 고백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힘이 나고 극복할 힘이 생겼다’ 또는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 하곤 한다’ 또는 직장에서 문제와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떠올리며 대처를 하게 되었다’ 또는 직장에서 ‘통성경을 전하고 싶다’ 정도로 요약이 되었다.

그 외 ‘아직은 잘 모르겠다’가 대부분이었다. 약 3년 정도의 통성경 교육의 결과를 통해 살펴봤을 때 변화를 향한 본인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지 않고는 사회적 변화까지는 어려웠고, 다만 조금 더 지속적으로 5년 이상 통성경 교육이 이어지면 사회나 직장의 변화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확실해진 것은 변화에도 단계가 있으며 그것은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 사회(직장)의 변화로 이어져 나간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조병호가 주장하는 것처럼 5살 때부터 20살까지 통성경 교육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진행된다면 개인, 가정, 교회, 사회(직장)를 넘어 나라까지도 성경으로 충분히 변화될 수 있으며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그의 주장에 연구자도 가슴 깊이 동의하는 바이다.

제 V 장

결 론

요약 및 평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당시에 만났던 회중은 크게 4그룹이었다. 첫째는 사두개파, 둘째는 바리새파, 셋째는 세리들과 넷째는 창기들이었다. 이 가운데 사두개파는 모세오경을 통해, 바리새파는 구약 39권을 통해(물론 세리와 창기들은 아무것도 없었다), 회중의 변화를 꿈꿨지만 결국 이들은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구약 39권을 통해 당시에 만났던 회중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회중 변화 방법은 구약 39권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줄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연구자가 생각한 통성경을 통한 회중 변화의 방법이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연구자는 이미 안산에 있는 시온성교회에서 약 3년간 3회에 걸쳐 통성경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리고 함께 공부했던 성도들에게 설문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연구자는 다시 1년 37주 과정의 커리큘럼을 만들었다. 이는 1년 365일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36.5강(첫 강의는 오리엔테이션으로 반절에 해당한다)으로 재구성했다. 참고로 1년 52주는 교회의 일정(교회의 여러 절기 및 헌신 예배 등과 같은 특별 예배)과도 겹쳐 있는 부분이

있기 1년 37장이 적당했고 또한 기간이 너무 길지도 않아 성도들도 큰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표6> 시온성 통성경학교 3차 커리큘럼

주	제 목	성경 범위
1주차	오리엔테이션	자기소개 및 과제 안내
2주차	원역사, 족장사	창세기 1~36장
3주차	입애굽과 민족	창세기 37~50장
4주차	출애굽과 제국	출애굽기 1~18장
5주차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 19~40장
6주차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만나세대	레위기 1~27장 민수기
7주차	만나 학교 졸업	신명기
8주차	약속의 땅 입성	여호수아
9주차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사사기
10주차	교육의 성공 사례	룻기
11주차	미스바 세대	사무엘상 1~7장
12주차	왕정의 시작	사무엘상 8~31장
13주차	하나님의 종 다윗	사무엘하 열왕기상 1~2장
14주차	솔로몬과 시가서	열왕기상 3~11장 잠언, 아가서, 전도서, 욥기, 시편
15주차	남북 분열 왕조	열왕기상 12~22장 열왕기하 1~14장
16주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아모스, 호세아, 요나
		열왕기하 15~20장 이사야, 미가 열왕기하 21~23장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17주차	잡간의 징계	열왕기하 24~25장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오바냐, 역대상 · 하
18주차	포로민 설득	에스겔
19주차	제국 변동의 밑그림	다니엘
20주차	성전 재건, 성벽 재건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21주차	고백과 침묵	말라기
22주차	헬라 제국과 중간사	
23주차	로마 제국과 중간사	
24주차	예수님 탄생	마태복음
25주차	공생애 3년	마가복음
26주차	마지막 1주일	누가복음
27주차	십자가 승리 -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
28주차	열리는 제자 시대	사도행전 1~12장
29주차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3~15장 35절
30주차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5장 36절~18장22절 데살로니가전 · 후서, 갈라디아서
31주차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8장23절~19장 고린도전 · 후서
32주차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사도행전 20~26장 로마서
33주차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	사도행전 27~28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34주차	기독론과 기적의 편지	골로새서, 빌레몬서
35주차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36주차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 · 후서, 유다서

37주차	최후 승리의 노래	요한 일·이·삼서, 요한계시록
------	-----------	------------------

통성경을 진행하면서 많이 느꼈던 점이 있다. 우리는 참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마다 설교를 듣는다.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¹ 연구자의 교회의 경우에 1주일에 5일(월~금)을 새벽 예배로 모인다. 화요일에는 선교회와 전도회의 모임이 있는데, 예배로 시작한다. 수요일에는 오전과 오후에 수요 예배로 모인다. 금요일 저녁에는 8시부터 금요철야 기도회로 모인다. 물론 이 시간에도 설교는 있다. 주일에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예배가 있고, 교육부서 별로 예배가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많은 예배 시간을 통해 그 많은 설교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기대하는 것만큼 변화하지 않는 것일까? 설교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 또는 설교를 듣지 못해서 변화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기대만큼 변화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몰라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많이들 믿고 고백하는 것 같지만 정작 성경을 모르고 있다. 물론 설교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그 자체의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대하셨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 행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성경 그대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물론 어떤 이들은 성경을 안다고 말한다. 창세기도 알고, 출애굽기, 사사기,

¹ 연구자의 교회는 월요일~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가 있고, 토요일, 주일은 없다. 이것은 교회마다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는 1주일 내내 새벽 기도회가 있다.

열왕기, 역대기서 등을 안다고 말한다. 시편도 알고 욥기도 알고 잠언, 전도서도 안다고 말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알고 사도행전도 알고, 고린도전·후서도 등도 안다고 말한다. 문제는 그 안다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와 롯기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레위기와 복음서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출애굽기와 예레미야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열왕기서와 사도행전의 공통점은 무엇이며 차이점은 무엇인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분적이고 과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착각은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안다고 할 수 없다.

오늘날 많은 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는 별 관심이 없다.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축복이다. 간혹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보인다 해도, 그것은 내세의 복을 위한 것일 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연구자가 통성경을 통해 성경을 새롭게 알게 되고, 성경의 체계를 다시 세우게 되었을 때 성경은 너무나 마음 따뜻한 책이었고 엄청난 책이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개인, 가정, 나라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을 뿐 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통성경 프로그램에 참여한 많은 교우들과 함께 나누었을 때 그들도 역시 연구자가 느꼈던 그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성경을 알아가는 이들이 조금씩 삶의 변화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모두가 그러한 삶의 변화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처음에는 기대 이하였다. 아니 기대에 역행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 통성경 공부를 마친 이들 중에는 그 어떤 교회 봉사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통성경을 통해 성경을 너무나 좋아하게 된 그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어떤 일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 물론 이것도 삶의 변화라면 변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 중직을 감당해야 할 권사의 직분을 맡은 이들이, 안수 집사의 직분을 맡은 이들이, 그 어떠한 교회 봉사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만 함께 모여 공부하고 나누는 일에만 집중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연구자는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갈급함이 매우 컸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염려도 됐고,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약간은 염려 섞인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 봉사 등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만 했던 이들이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통성경을 공부하면서 참여자들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통성경을 통해 알게 된 성경 지식을 교회 학교 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전했고, 또는 구역의 리더가 되어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었다. 교회 내에서 성경을 이야기 하는 이들이 적고, 또한 성경의 이야기를 주제로 하여 모이는 그룹²이 적은 것이 보통의 현실인데 이들은 교회 내에서 주도적으로 성경을 이야기하며 또한 몇 명은 성경 이야기를 주제로 모이는 소그룹을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다. 물론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은 교회의 목회자에게 먼저 동의를 받은 후에 진행했다. 이것은 질서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통성경을 통해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교회의 질서를

² 교회 내에서 이런 그룹이 많아지고 활성화 된다는 것은 정말이지 교회에 대한 목회자의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한다.

중요시하고 말씀이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 뿌리 내림에 대한 기쁨과 말씀을 통해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는 일을 즐겨했고, 그 마음에 자신들의 삶을 맞춰 살아가는 것을 아주 기뻐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들과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변화가 생겨났다.

결론적으로 살펴볼 때 통성경 프로그램은 ‘성경을 통해 개인, 가정, 나라가 살 수 있고, 성경으로 전도하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통성경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에 매우 적합했다. 다만,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완전한 변화를 시작하기까지 교회는 좀 더 참고 인내하며 통성경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언

이 논문은 통성경 교육 프로그램이 성도들의 삶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 통성경 교육 프로그램이 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많은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무엇보다 본 연구자에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본 연구자는 안산에 있는 시온성교회에서 16년을 부교역자로서 사역을 감당해왔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다. 연구자에게 시온성교회는 제2의 모교회나 다름이 없었다. 웬만한 성도들보다 교회를 섬긴지도 오래되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믿고 사역을 맡겨 주셨기에 목회적인 측면에서도 전혀 갈등이 없었고, 오히려 담임 목회자가 아니었기에 사역에 대한 큰 부담도 없었다. 교회는 전체적으로 평온했으며 그에 따라 본 연구자도 이유 모르게 영적 침체에 빠져 들게 되었다. 또한 이 통성경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까지

본 연구자는 신·구약 성경을 70여 번 정독을 했다. 신약성경만은 200여 번을 정독했다. 나름대로 제법 성경을 읽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각각의 이야기였다. 그러던 중 통성경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 통성경 교육 프로그램이 본 연구자에게는 새로운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우선은 성경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지게 되니 언제 어디서든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고, 애써 알레고리적 해석을 필요도 없게 되었다.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고, 그에 따라 66권을 하나하나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 욕심도 생겨났다. 66권을 *Sub Story*로 담을 만한 분명하고 확실한 *Main Story*가 생겨났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통성경 프로그램을 함께 하는 성도들과 1년에 10번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다. 교회 전체적으로는 성경 읽기 목표를 세워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도에는 교회 성도들 전체가 373,224장을 통독했고 2018년도에는 468,904장을 통독했다. 뿐 만 아니라 이들은 166명이나 전도했다. 물론 교회 내에 전도 특공대라는 공동체가 따로 있어 그들이 많은 수고도 했지만, 그 전도 특공대내에 통성경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그들이 교회 내에 있는 전도 특공대에 찾아 들어간 것이다.

이제 2019년도 5월이면 연구자가 부목사로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하신다. 또한 이후에는 본 연구자도 현재 시온성교회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곳에서 16년을 사역하면서 그래도 교회에 작게 시작했지만 나름대로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성경 교육 프로그램을 3년이나 진행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본 연구자는 미래

목회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이 매우 크다. 물론 아직 본 연구자의 연구나 실력이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곳에서의 통성경 프로그램에 대한 좋은 결과에 대한 기억은 본 연구자가 이후에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든지 그곳에서도 통성경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한다.

참고 문헌

번역서적

- 레너드 스윗. *미래 크리스천*. 김영래 역. 서울: 좋은 씨앗, 2007.
- 로드니 스타크. *기독교의 발흥*. 손현선 역. 서울: 좋은 씨앗, 2016.
- 벤자민 슈월츠. *중국 고대사상의 세계*. 나성 역. 살림 출판사, 1997.
- J.M 마이어. *국제성서주석*. 이환진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 알란 스트링펠로우. *책별 성경 공부*. 두란노서원 편집.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5.
- 위르겐 몰트만.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채수일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 위르겐 몰트만. *생명의 영*. 김균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 칼 바르트. *교회 교의학 I/2*. 신준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하비 블루던, 로리 블루던. *기독교적 교전교육*. 김선화 역. 서울: 꿈을 이루는 사람들, 2008.

한국어서적

- 손디모데. *공동체 정체성을 위한 교육 목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2.
- 박봉량. *교의학 방법론(II)*.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 안병무. *민중신학이야기*.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 이금만. *교회 교육 청지기를 위한 34걸음 신앙교육 이야기*.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0.
- 이영재, 김범식, 우진성. *일점일획 말씀 묵상*. 서울: 도서출판 IBP, 2018.
- 이형기. *알기 쉽게 간추린 몰트만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옥한흠. *다락방성경공부 교재*.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1999.
- 조병호. *365일 성경 통독*.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6.
- 조병호. *7가지 질문(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알기)*.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5.

- 조병호. *그 순간*.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5.
-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5.
- 조병호. *통박사 조병호의 통통성경학교*.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6.
-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2.
- 조병호. *통이다. 랫츠통*. 서울: 땅에 쓰신 글씨, 2007.
-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5.
- 정수복. *시민의식과 시민참여*. 서울: 아르케, 2002.
- 프로이드 심리검사연구소. *EBS 유아성격검사*. EBS MEDIA, 2015.
-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 한국기독교장로회출판사, 2009.

신문기사, 잡지

- 김영래. “미래교회 트렌드 읽기(1) 연재를 시작하며,” *국민일보*, 2012.9.3.
- 백성호. “교회,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중앙일보*, 2008.5.1.
- 장창일. “‘심방은 좀...’ 목회자 방문 꺼리는 ‘그림자 성도’ 급증,” *국민일보*, 2019.1.18.
- 조효석. “피해자를 조롱... ‘공감 마비’ 사회,” *국민일보*, 2018.12.21.

웹사이트

- <https://www.tongdok.net>. 통독원.
- <https://ko.wikipedia.org/wiki>. 위키백과.
- <https://dic.daum.net>. 다음인터넷사전.
- <http://www.hdjk.co.kr/main/index.html>. 현대종교.
- <http://www.bniel.net>. 바이블렉스, 브니엘성경연구소.
- <https://womad.life/>. 워마드.
- <http://www.megalian.com>. 메갈리아.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Taegyun Kim

Place and Date of Birth: Jeonbuk, South Korea, Oct 5, 1972

Parent`s Names: Hyungjun Kim and Hyoil Kim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Jeon-il High School 249, Ujeonlo, Jeonju-si, Jeonlabug-do, South Korea	Diploma	Feb. 09, 1991
Collegiate:	Hanshin University and Department of Philosophy 137, Hansindaegil, Osan-si, Gyeong-gido, South Korea	B.A, PH	Feb. 22, 2002
Graduate:	Graudate School of Hanshin Theology 26, Bonghoe 1-gil, Jillyang-eup, Gyeongsan-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M.div	Feb. 21, 2008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Taegyun Kim

Name typed

April 8, 2019

Date